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56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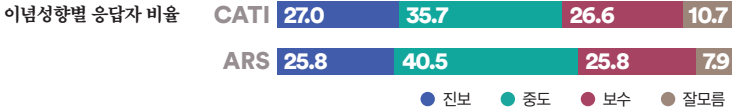
제71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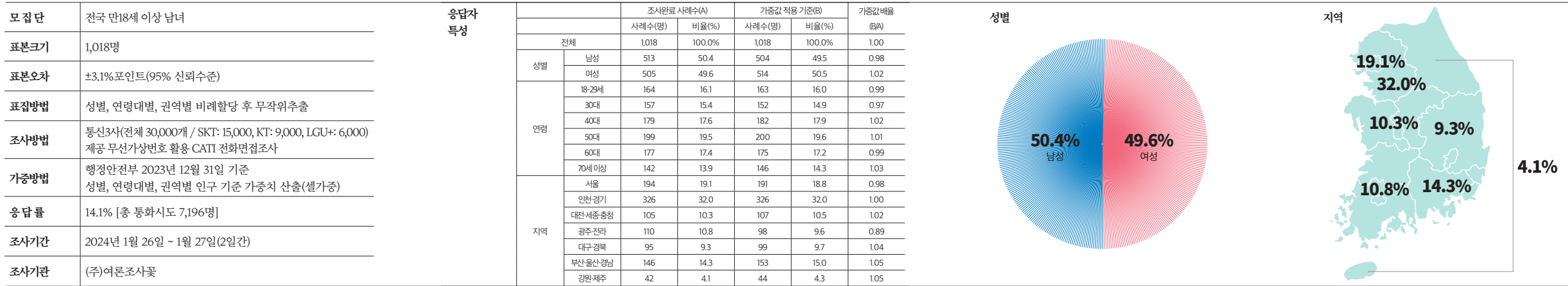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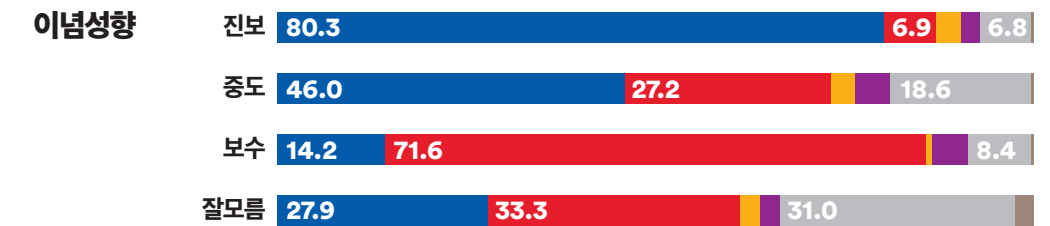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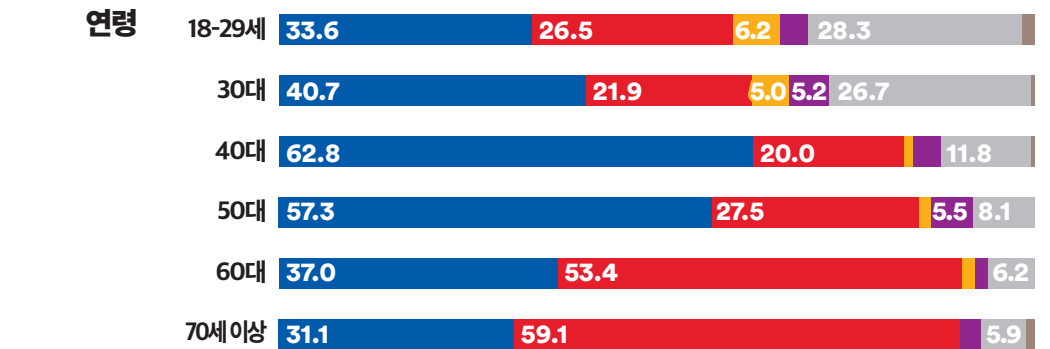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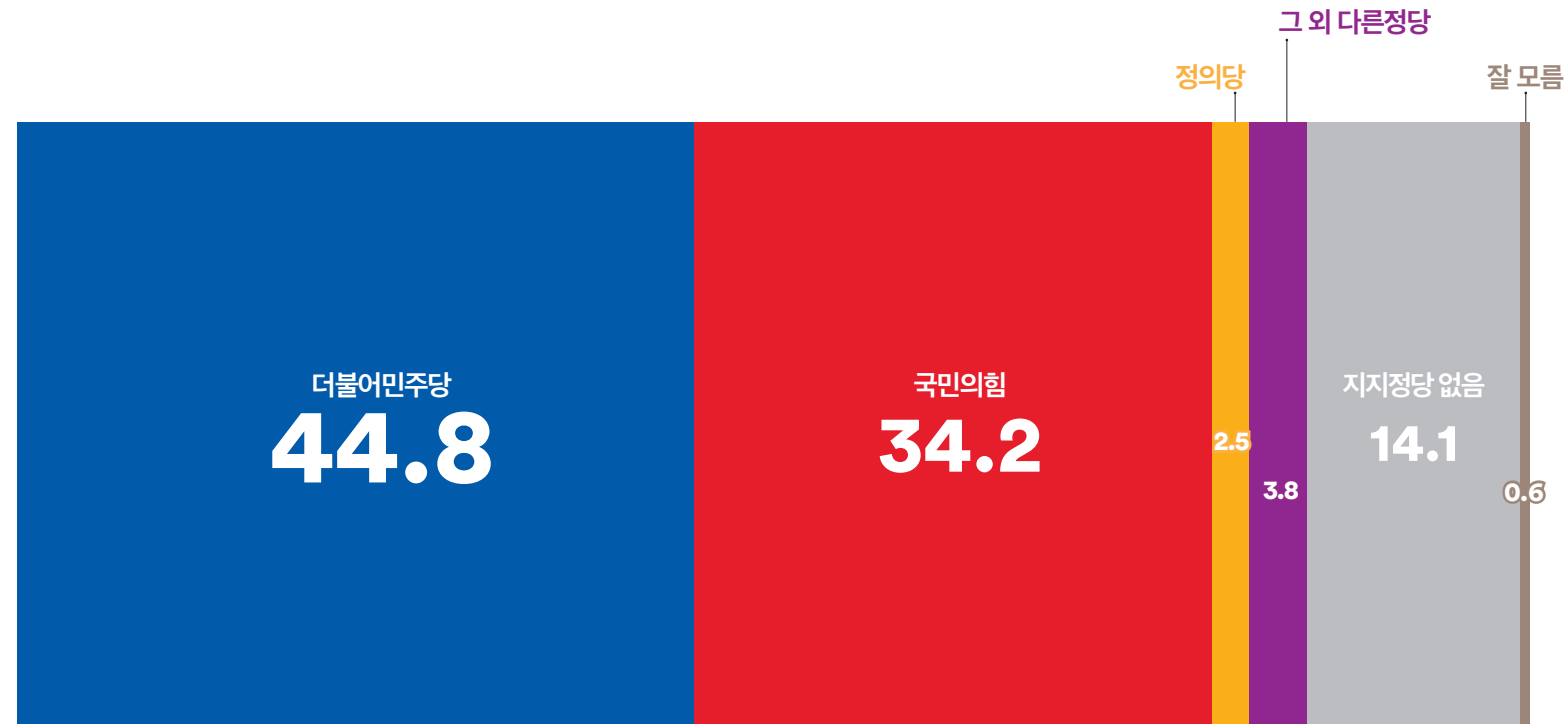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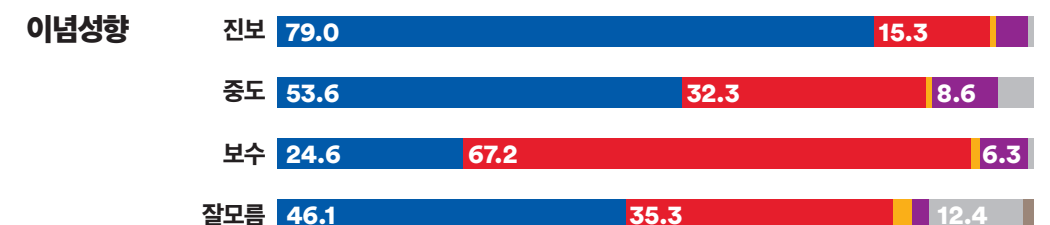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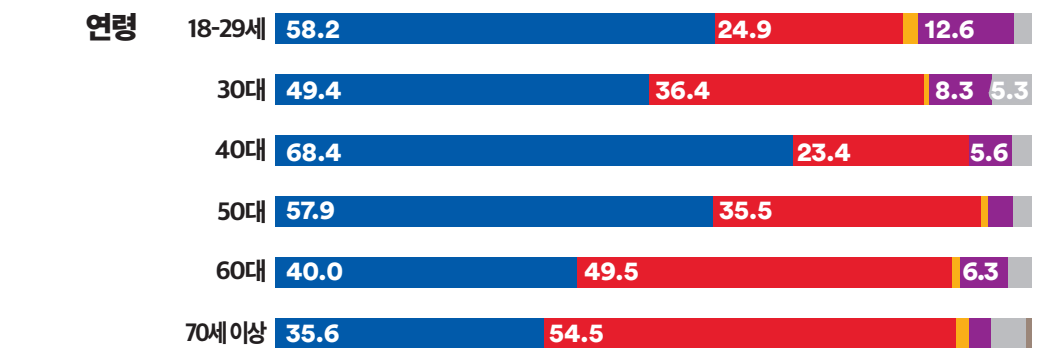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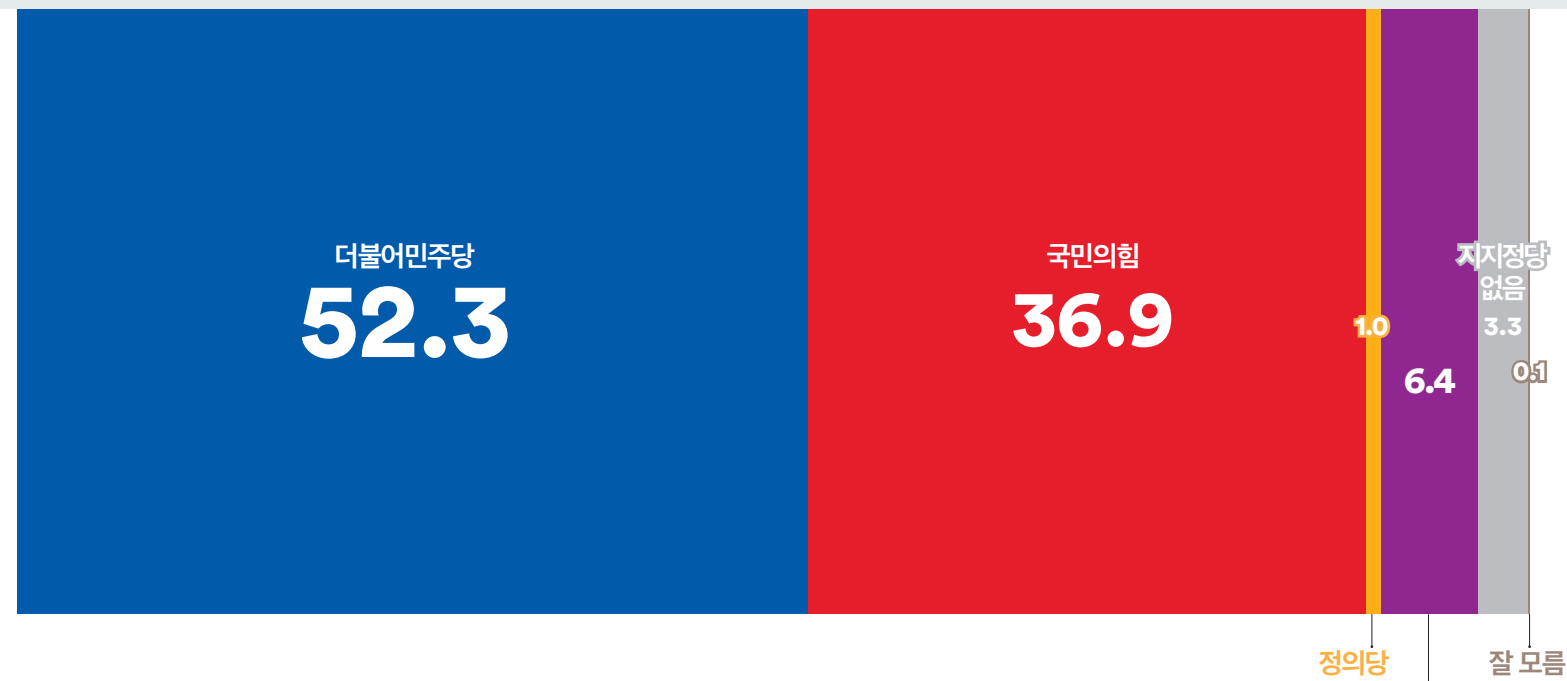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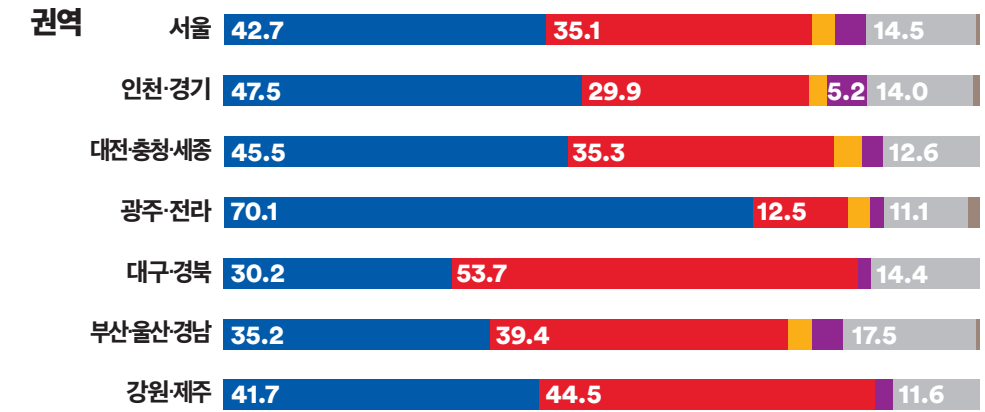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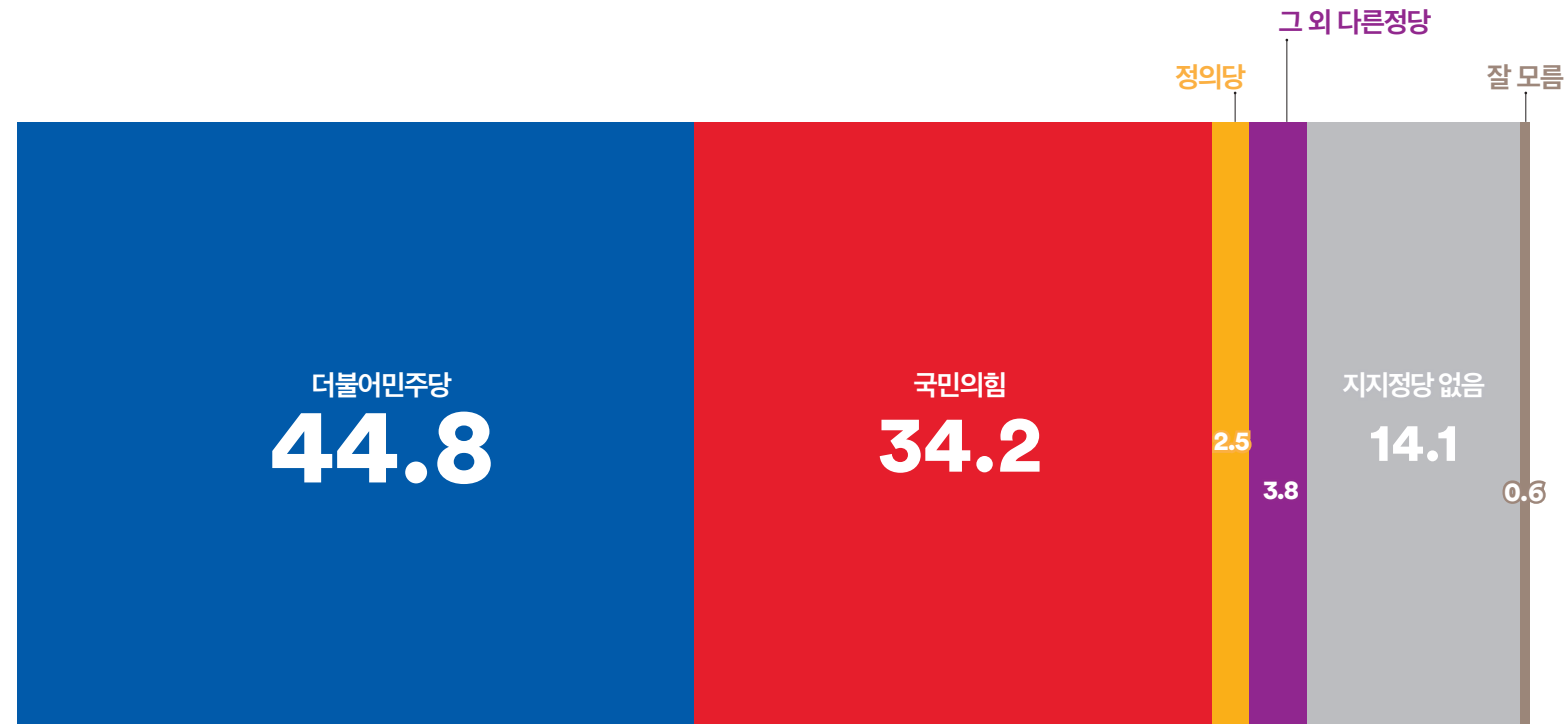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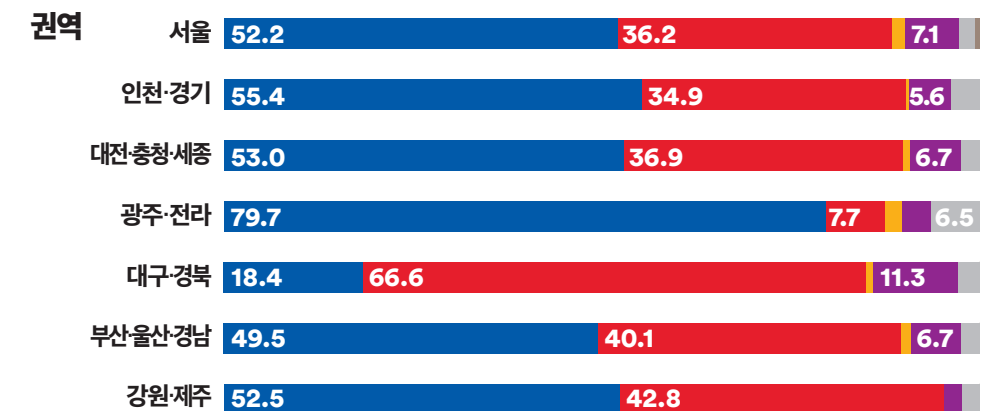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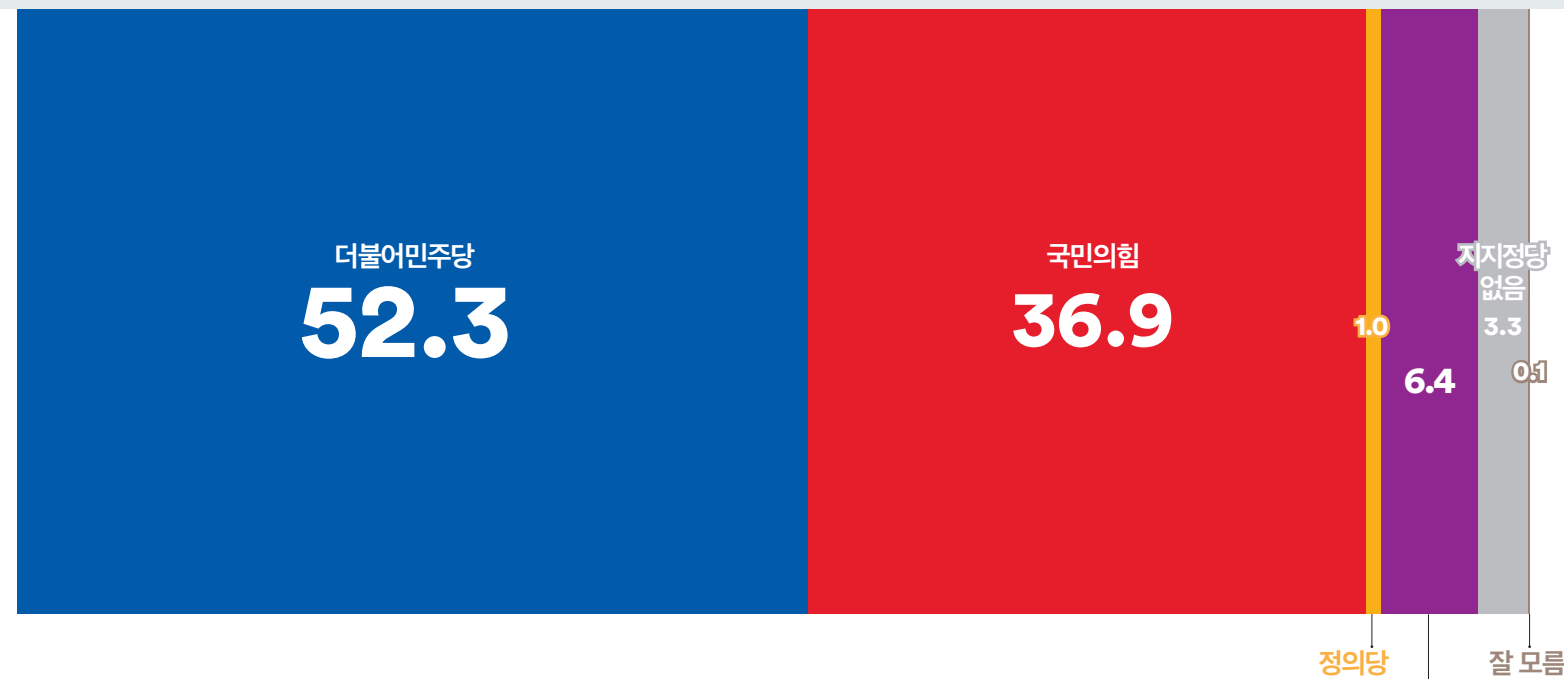
지난 55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4%p 하락, '국민의힘' 3.6%p 상승 (격차 10.6%p)
 지난 70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5.0%p 상승, '국민의힘' 0.9%p 하락 (격차 15.4%p)
 경인권, 호남권(ARS 서울 포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40·50대(CATI 30대, ARS 18-29세포함),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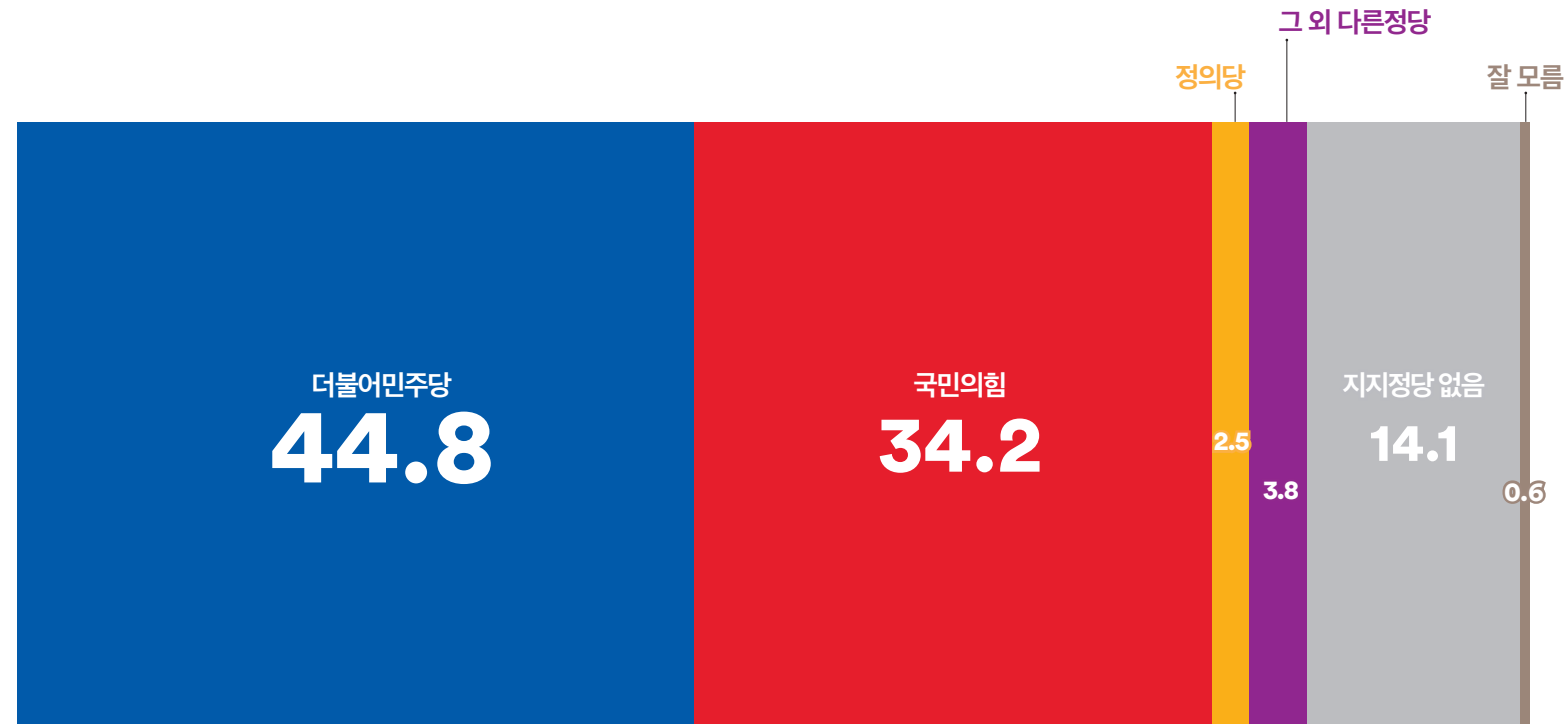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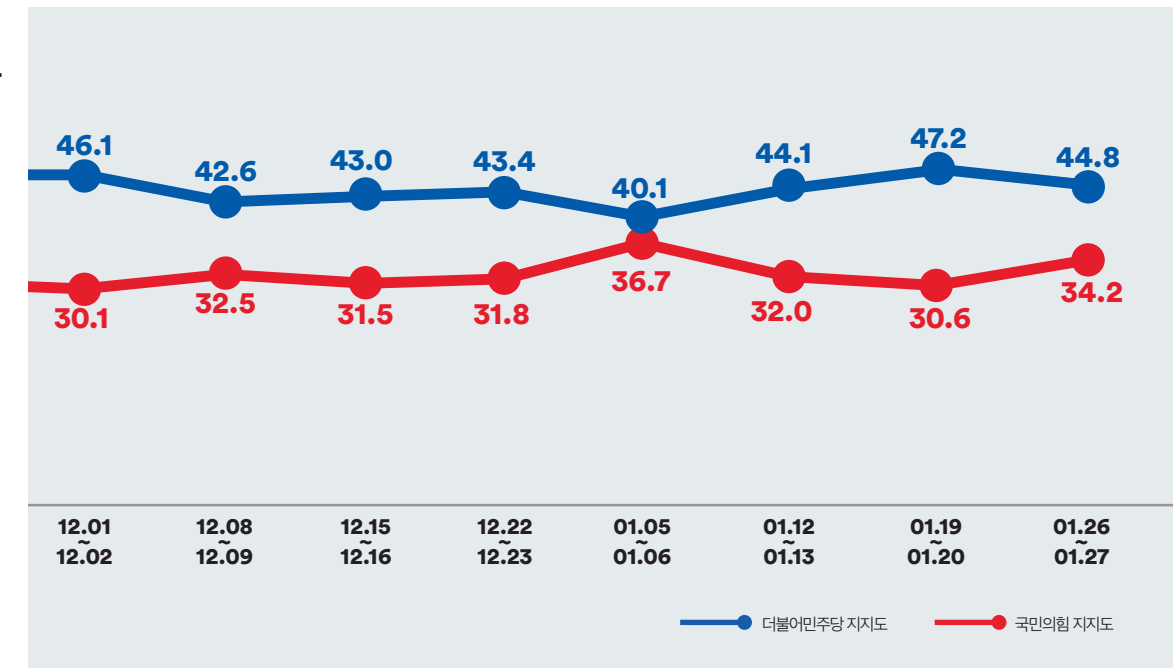
지난 55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4%p 하락, '국민의힘' 3.6%p 상승 (격차 10.6%p)
 지난 70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5.0%p 상승, '국민의힘' 0.9%p 하락 (격차 15.4%p)
 경인권, 호남권(ARS 서울 포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40·50대(CATI 30대, ARS 18-29세포함),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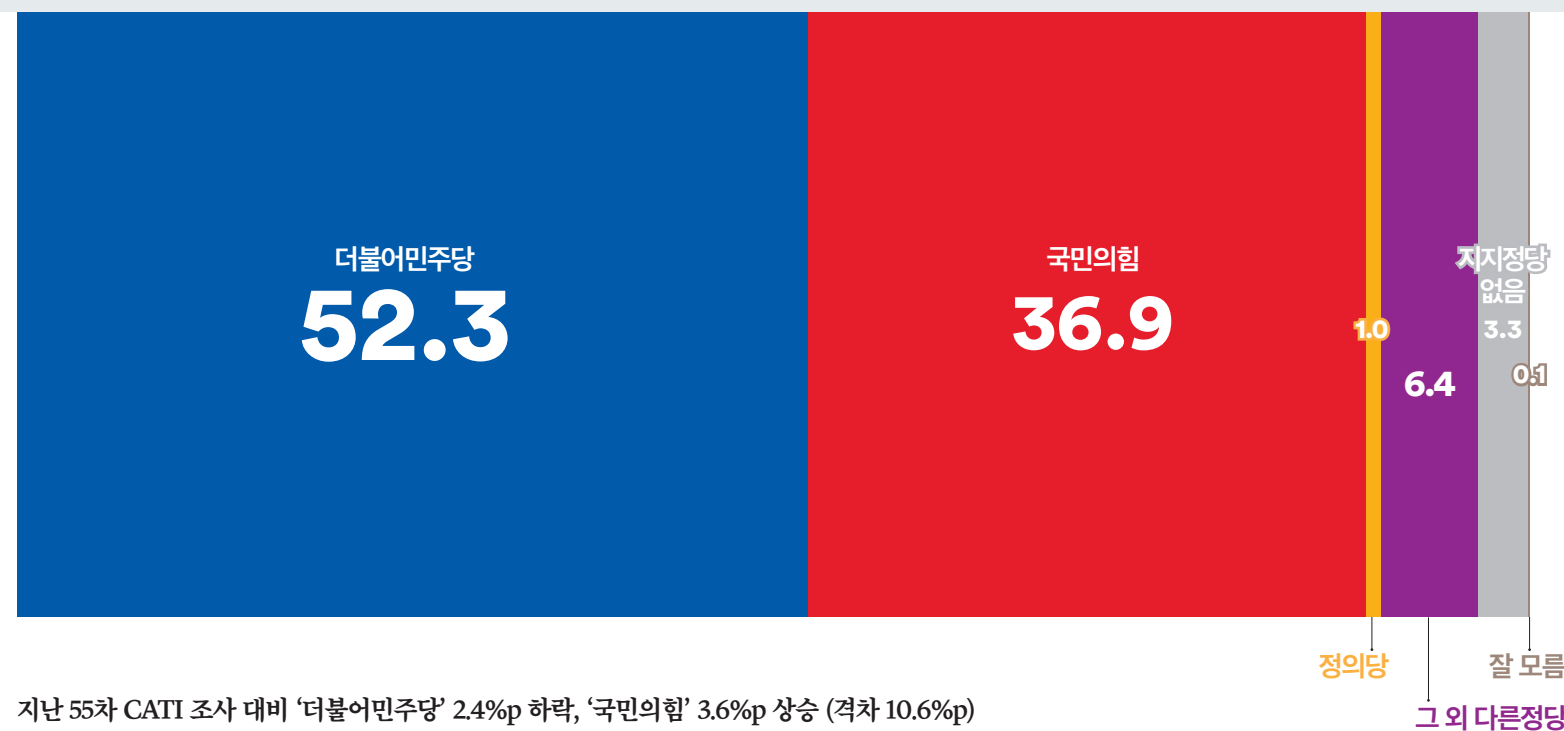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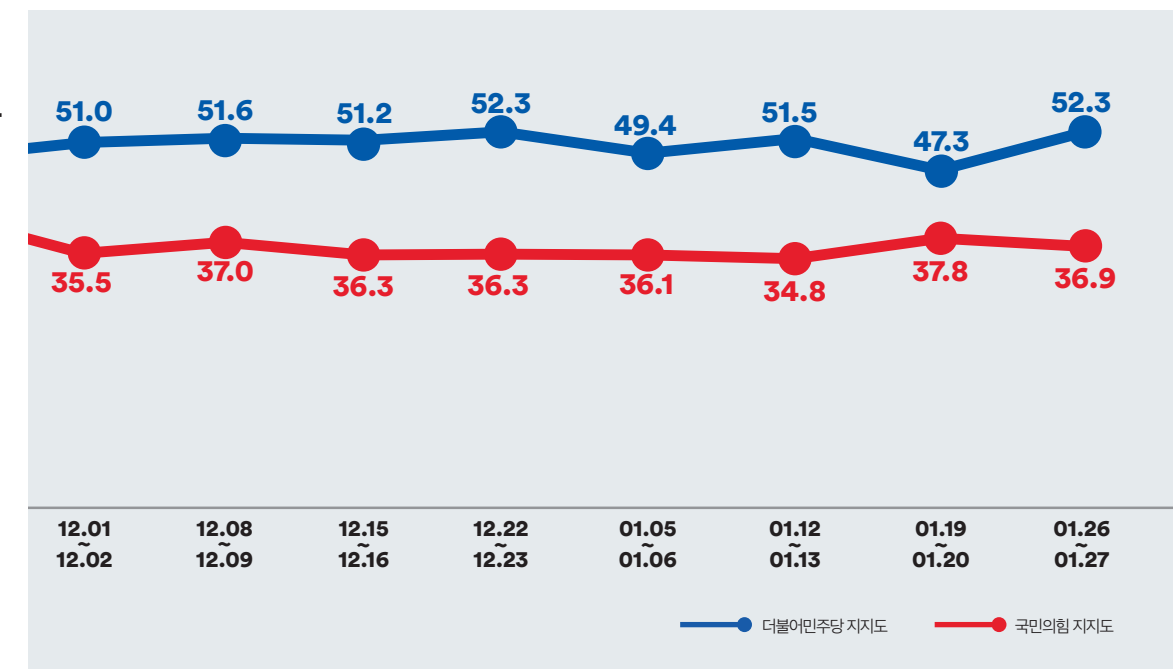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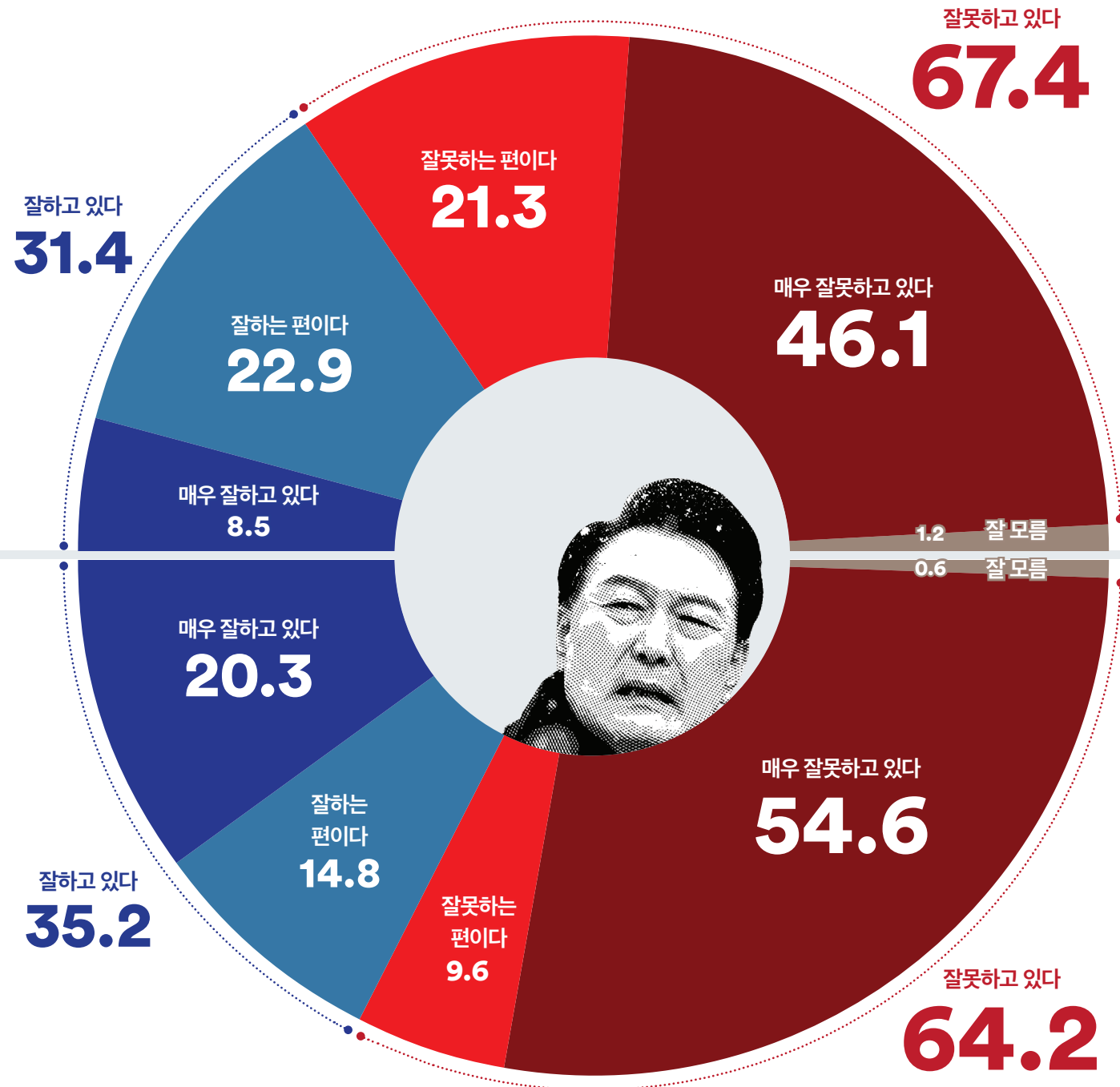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지난 55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4%p 하락, '국민의힘' 3.6%p 상승 (격차 10.6%p)
 지난 70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5.0%p 상승, '국민의힘' 0.9%p 하락 (격차 15.4%p)
 경인권, 호남권(ARS 서울 포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권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40·50대(CATI 30대, ARS 18-29세포함),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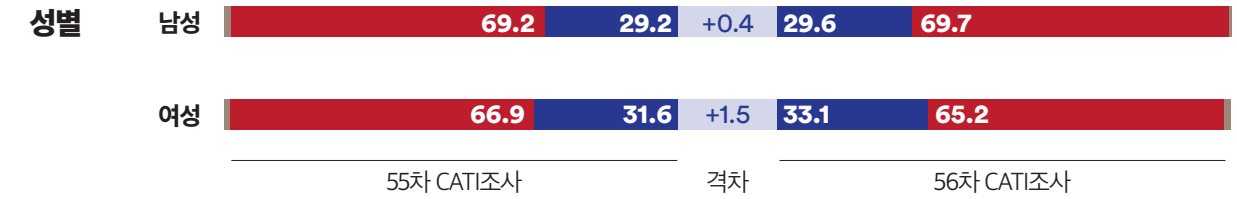


지난 55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 0.9%p 상승, '부정' 평가 0.6%p 하락 (격차 36.0%p)

지난 70차 ARS 조사 대비 '긍정' 평가 1.9%p 하락, '부정' 평가 2.1%p 상승 (격차 29.0%p)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은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은 '긍정' 평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긍·부정 평가 격차는 CATI 조사 51.2%p(지난조사: 51.1%p), ARS 조사 40.3%p(지난 조사: 33.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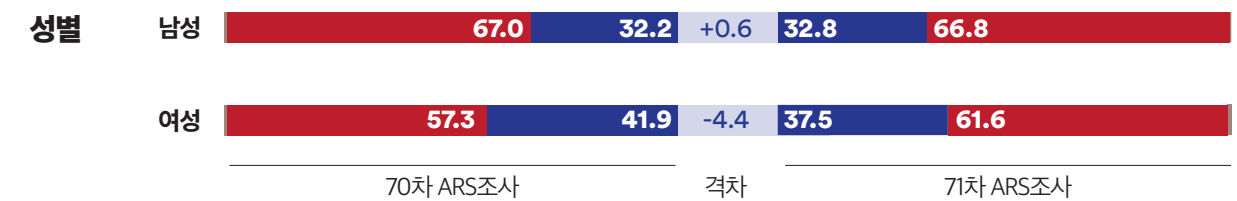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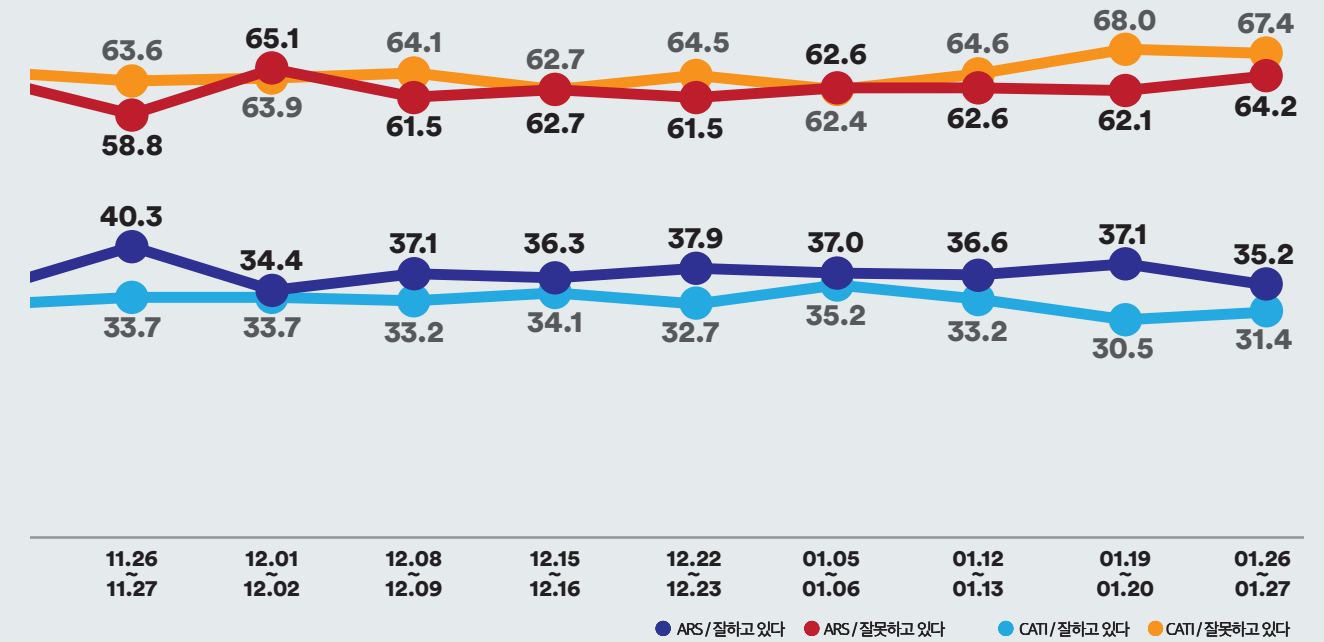


55차 CATI조사

격차

56차 CATI조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70차 ARS조사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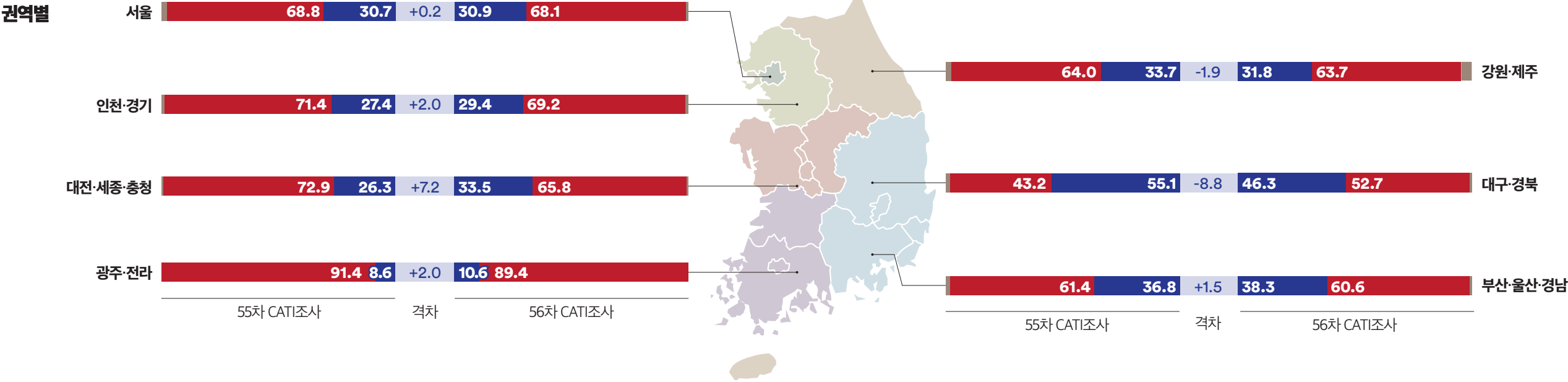
71차 ARS조사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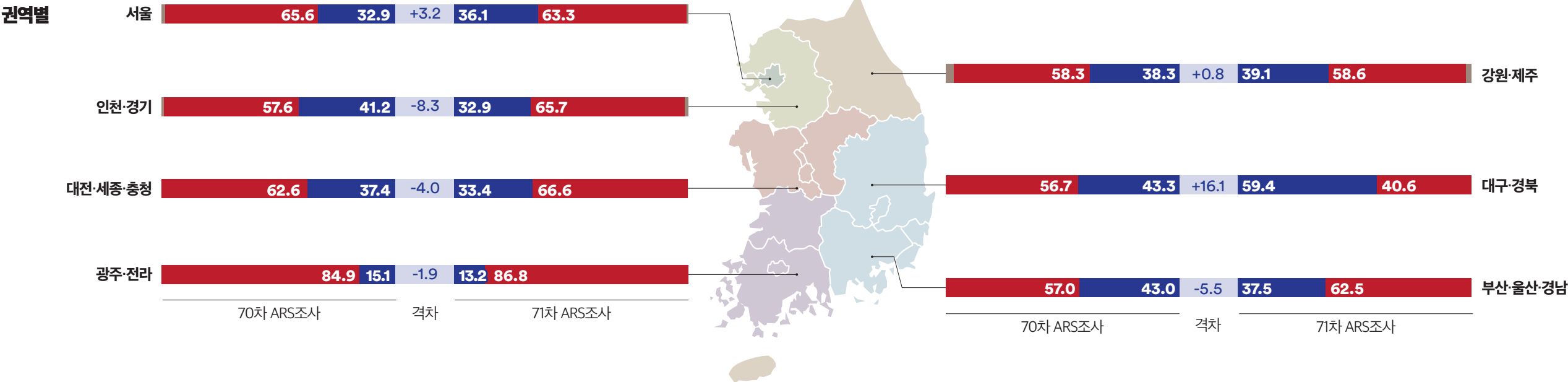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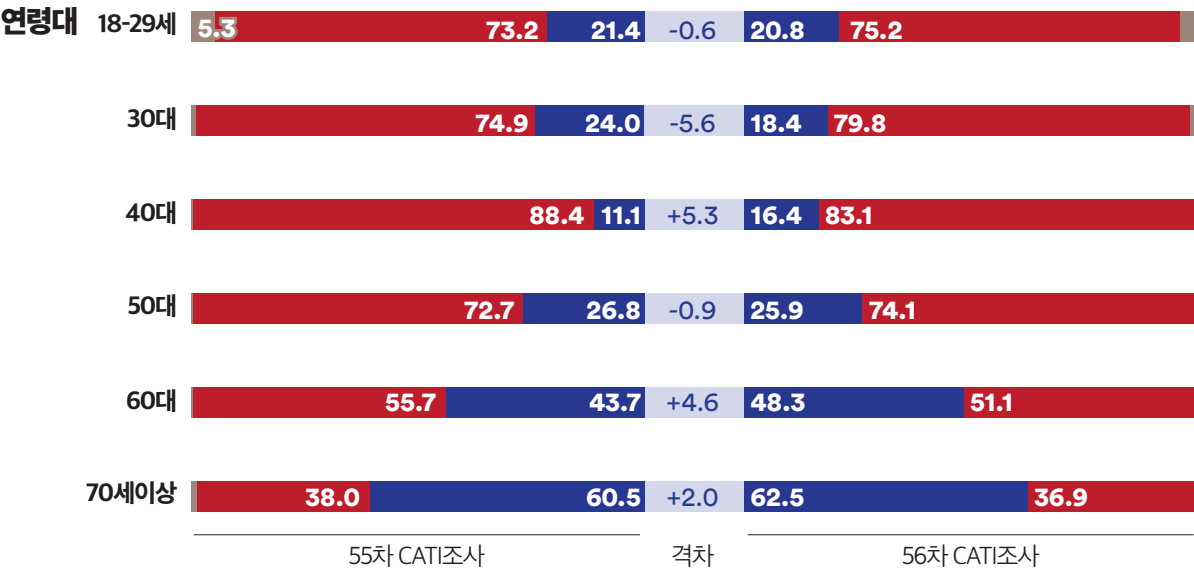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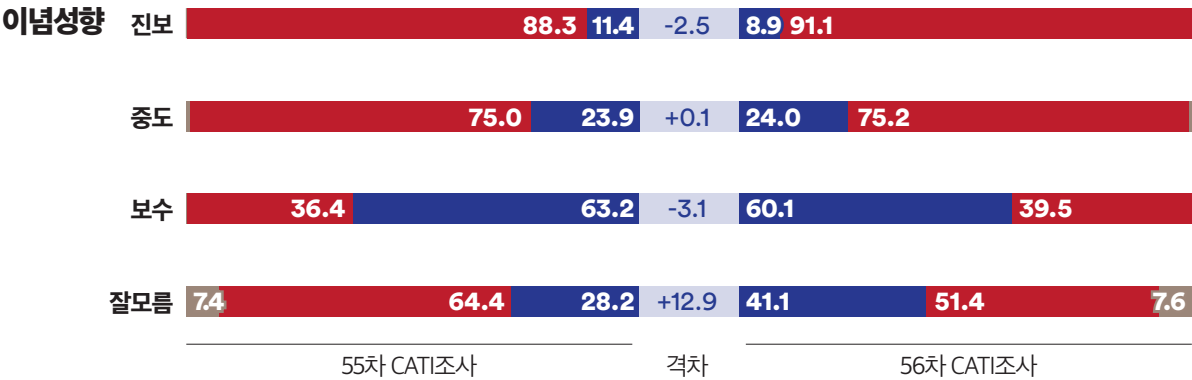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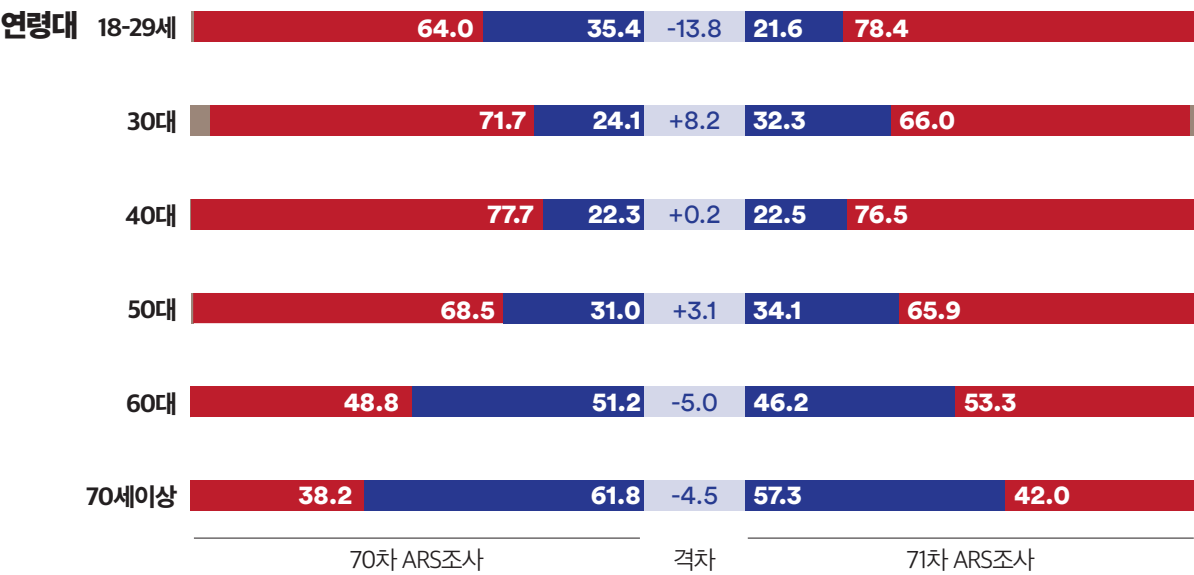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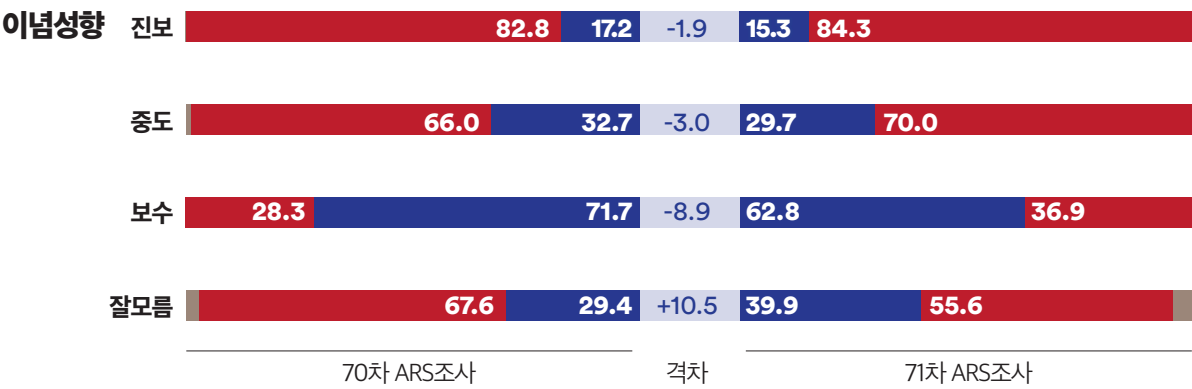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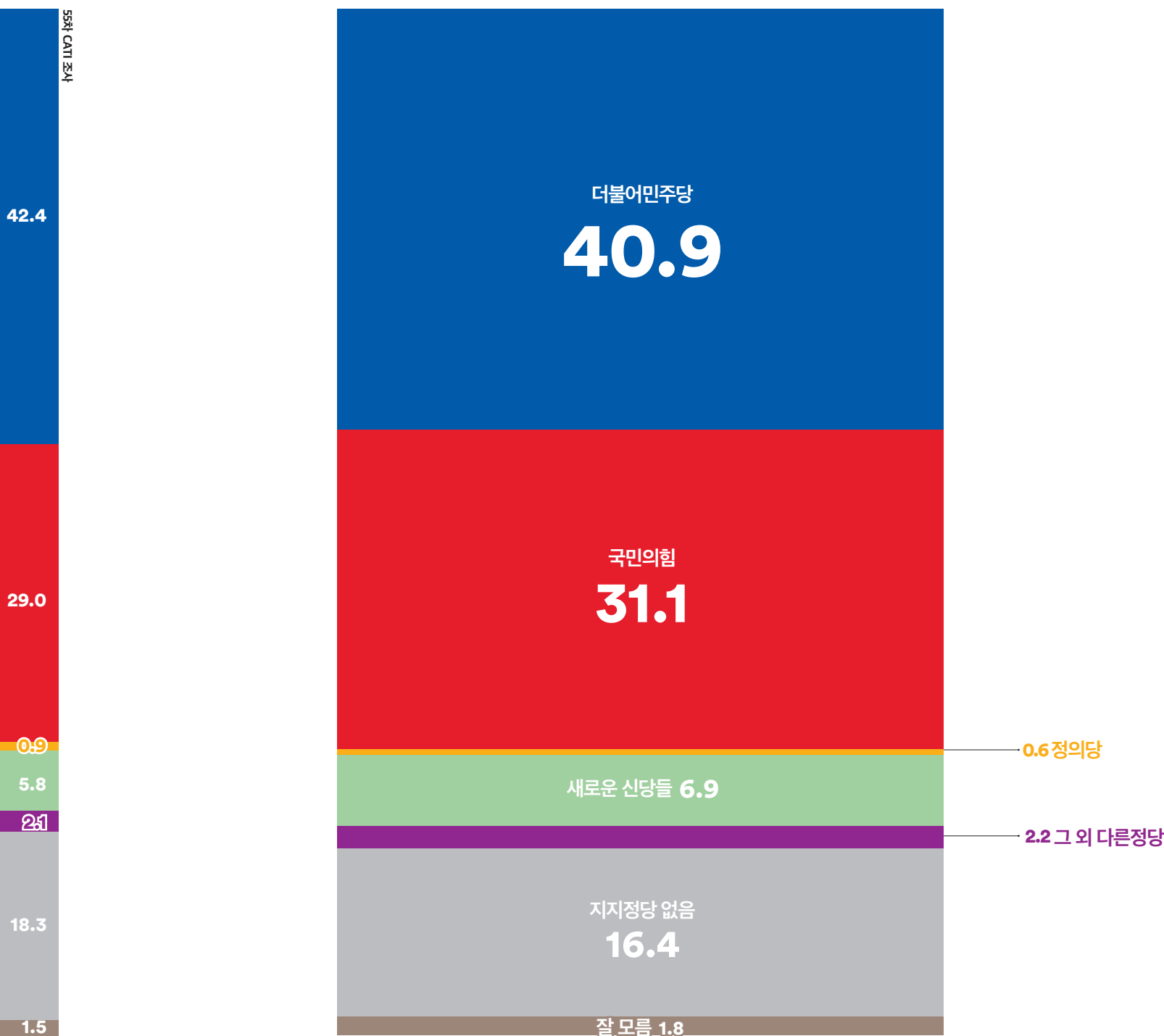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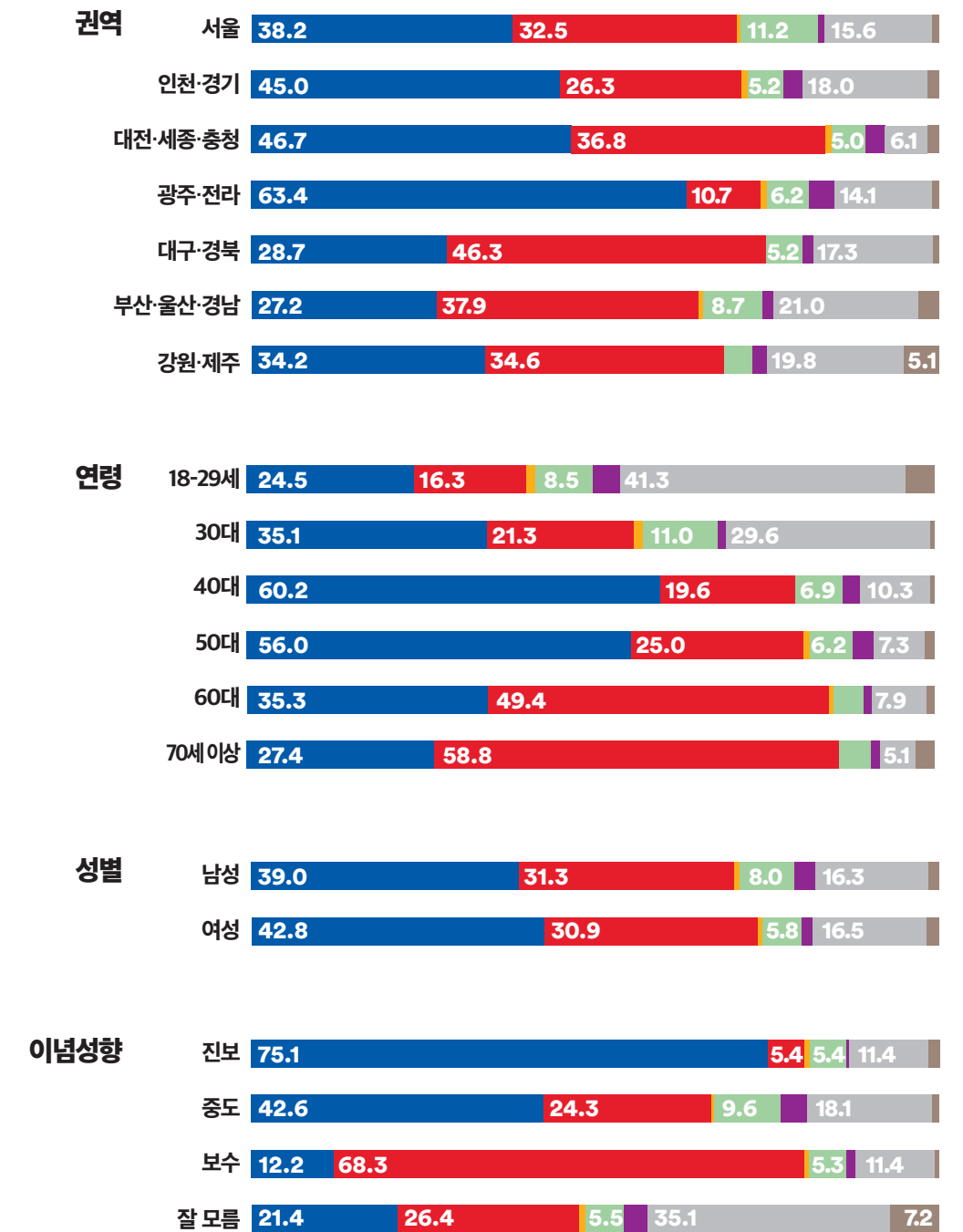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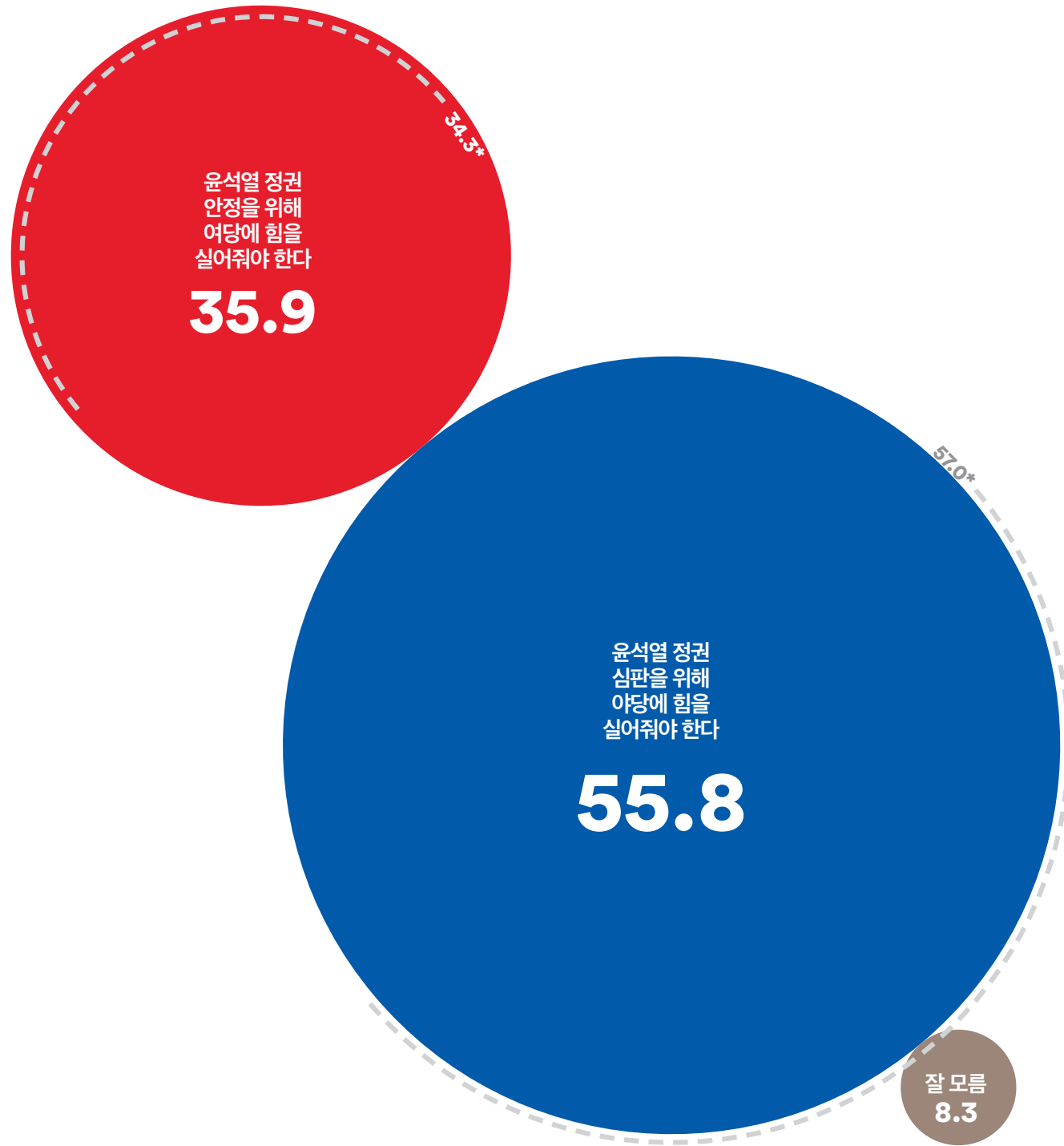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대비 앞섬 (격차 9.8%p)
지난 55차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1.5%p 감소, ‘국민의힘’은 2.1%p 증가, ‘새로운 신당들’은 1.1%p 증가
경인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TK와 PK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섬
‘새로운 신당들’은 서울 11.2%, PK 8.7%, 20대 남성 11.7%, 30대 남성 16.3%, 블루칼라 11.9%의 지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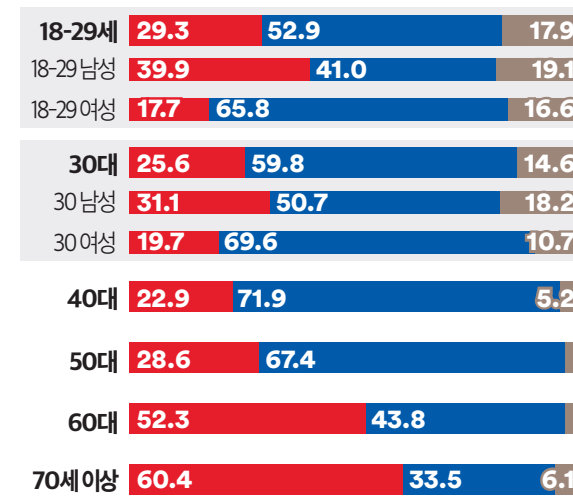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새로운 신당들
그 외 다른 정당 없음 잘 모름

Q. 차기 총선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는 순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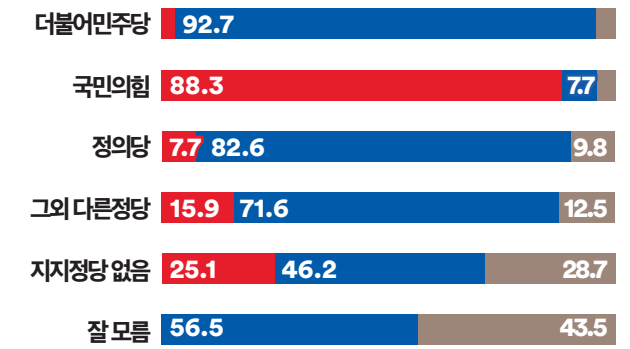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 (격차 19.9%p)
수도권, 호남권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정권 심판론' 우세, TK 및 70세 이상 응답층은 '정권 안정론'이 앞서거나 우세
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는 '정권 심판론' 우세 (중도층 격차 34.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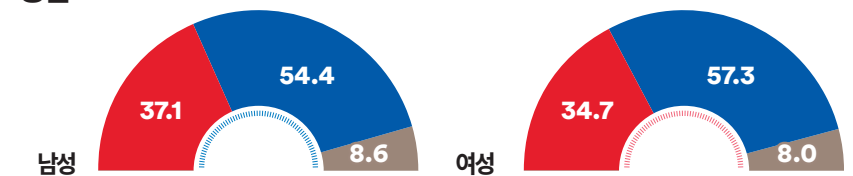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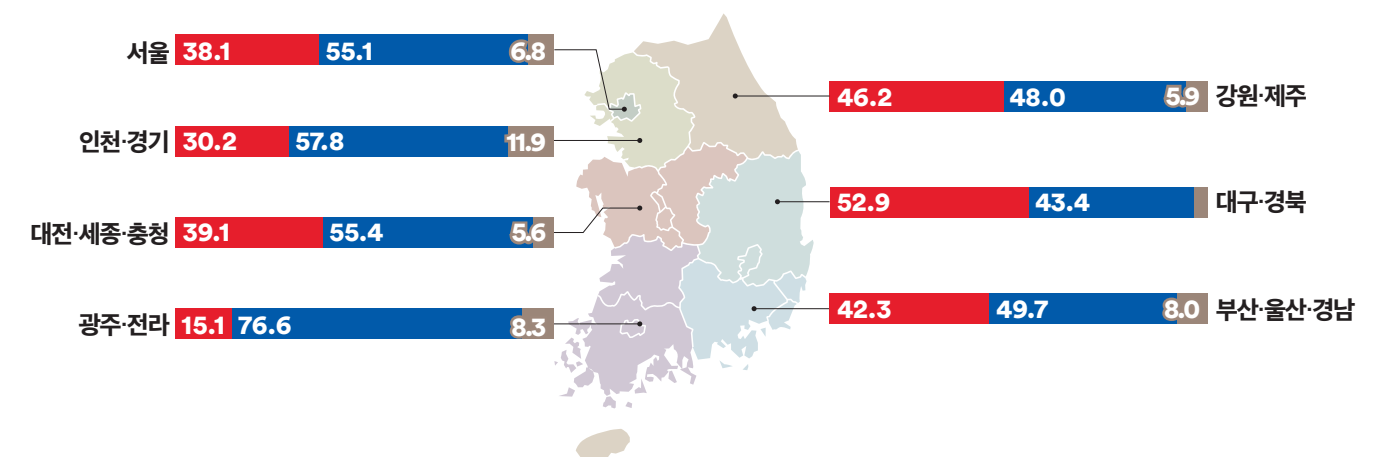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 54차 CATI 조사 수치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 모르겠다

대통령의 당무개입 의혹 공감도

Q. 대통령실 측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알려지며,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 두 주장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CATI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거로 알고있는데요.”

[2024. 1. 22 한동훈비대위원장 출근길 발언 중]

선거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다

54.3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다

33.4

잘 모름

12.3

7.7

잘 모름

30.7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다

61.6

선거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다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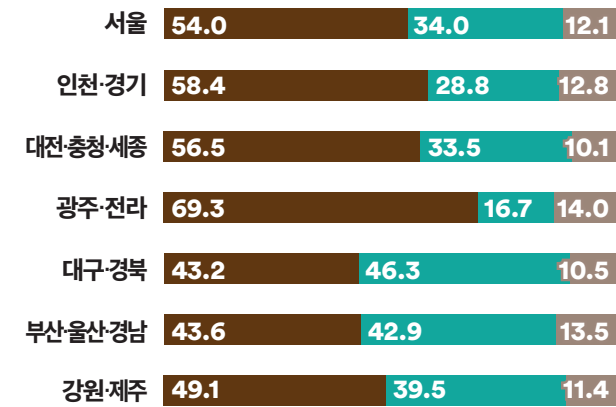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과반 이상이 ‘선거개입이자 중립 위반’이라고 응답 (격차: CATI 20.9%p, ARS 30.9%p)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ARS PK권역)은 ‘선거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다’이란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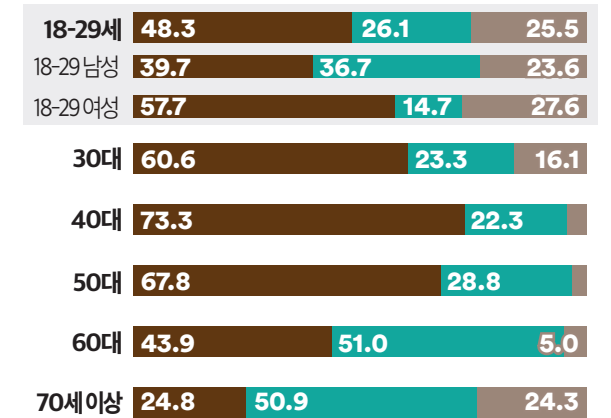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선거개입이자 중립 위반’이란 응답 우세

두 조사의 무당층과 중도층 모두 ‘선거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란 응답이 압도적 우세 (중도층 격차: CATI 32.3%p, ARS 38.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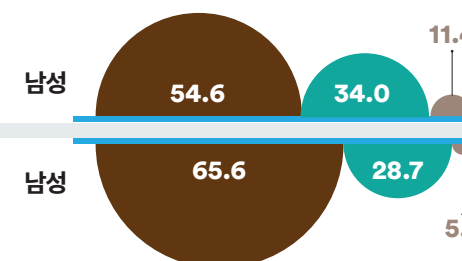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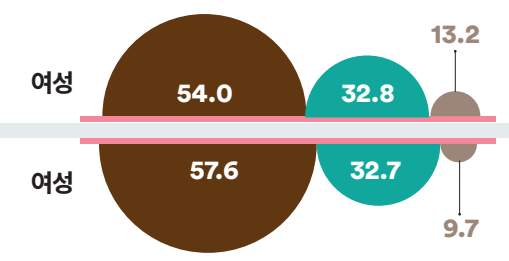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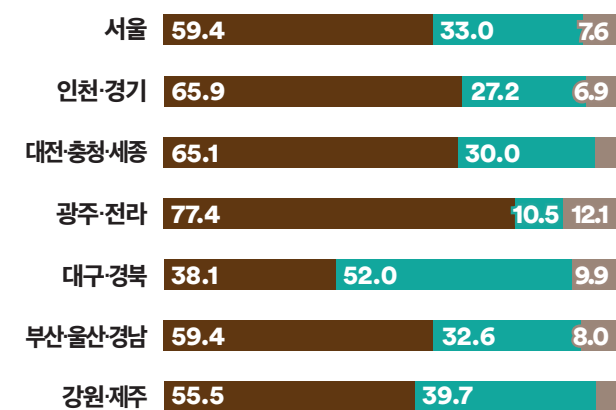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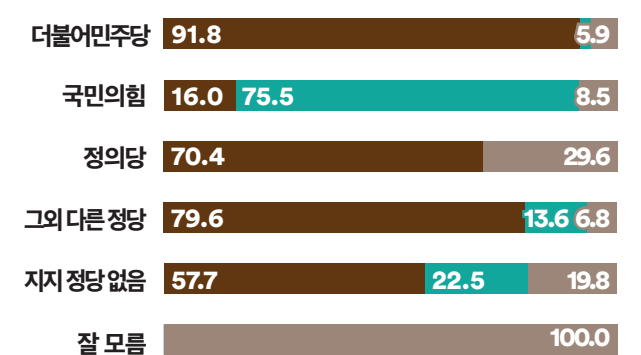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선거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모르겠다



Q.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소위 '약속대련'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내게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보낸 건 약속대련’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실장을 보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 한 위원장 쪽에 힘이 풀리는 모양새로 끝을 내려고 할 것.”

“특검 문제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약속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약속대련'관련 발언 모음]

약속대련이다
34.5

약속대련이 아니다
45.2

잘 모름
20.3

34.5
약속대련이다

47.9
약속대련이 아니다

17.7
잘 모름

두 조사 모두 '약속대련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10%p 이상 앞섬 (격차: CATI 10.7%p, ARS 13.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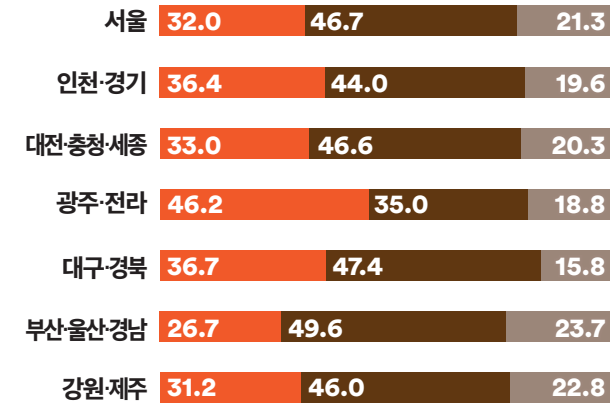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호남권에서만 '약속대련이다'라는 응답이 앞섬

두 조사의 60대 이상(ARS는 50대 포함) 연령층에서는 '약속대련이 아니다'라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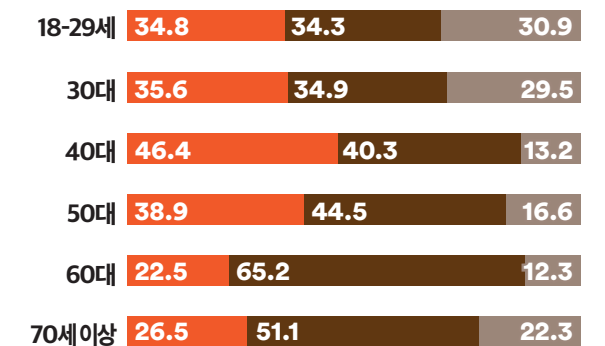
중도층은 두 조사 모두 '약속대련이 아니다'라는 응답 우세 (중도층 격차: CATI 11.5%p, ARS 10.2%p)

'약속대련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CATI 32.7%, ARS 33.9%, 진보층에서 CATI 32.6%, ARS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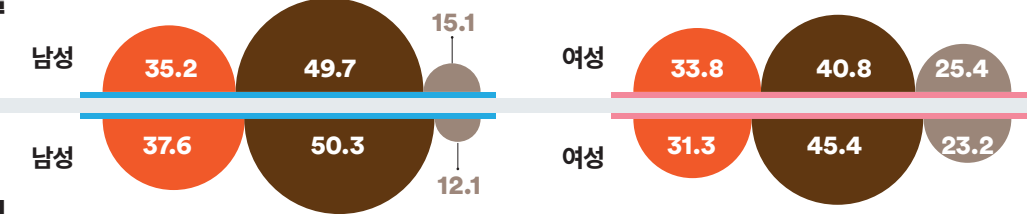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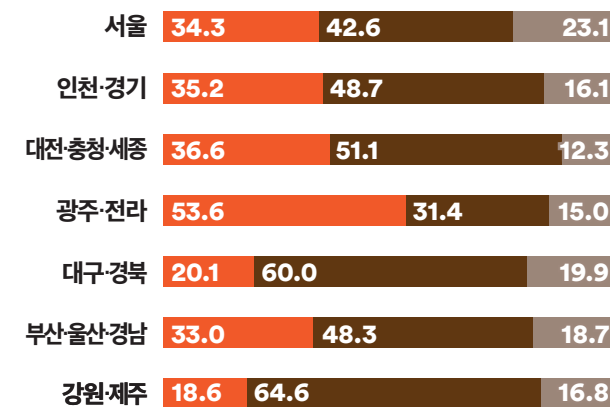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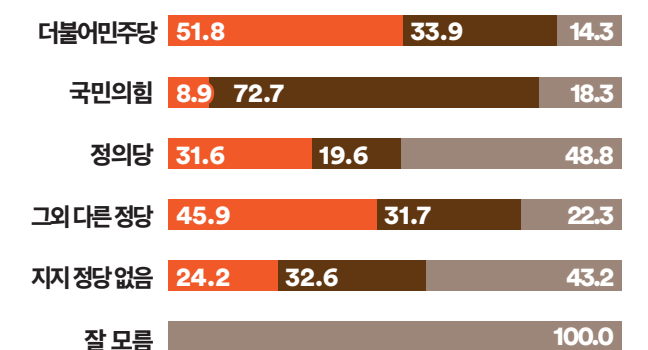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약속대련이다 약속대련이 아니다 모르겠다

Q.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으로 둘 중 누가 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윤석열 대통령
48.7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9.3

잘모름
22.0

ARS

윤석열 대통령
51.2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3.7

잘모름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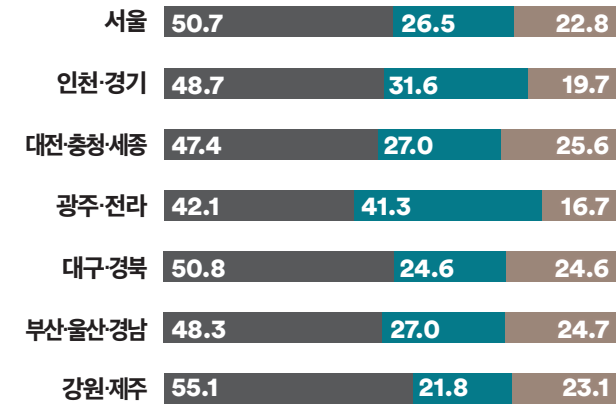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정도가 '윤·한갈등'으로 더 손해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응답 (격차: CATI 19.4%p, ARS 27.5%p)

CATI 조사의 호남권(오차범위 내 박빙)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에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란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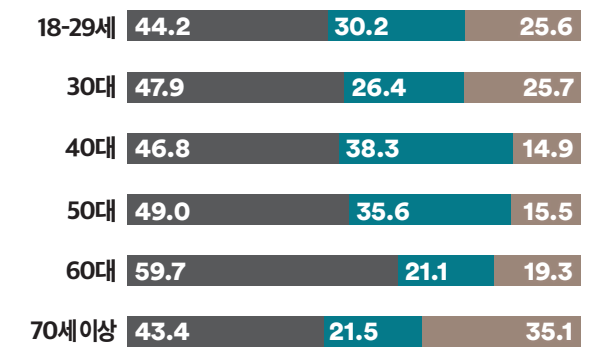
CATI 조사의 3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와 ARS 조사의 전 연령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란 응답이 우세

중도층에서도 두 조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란 응답 우세 (격차: CATI 26.5%p, ARS 34.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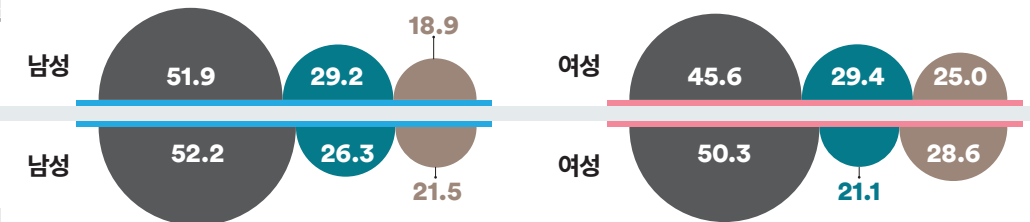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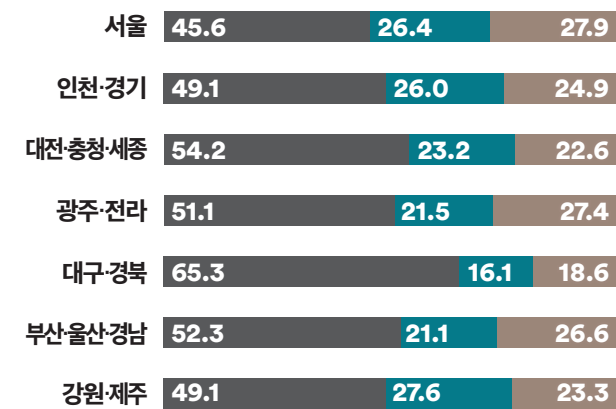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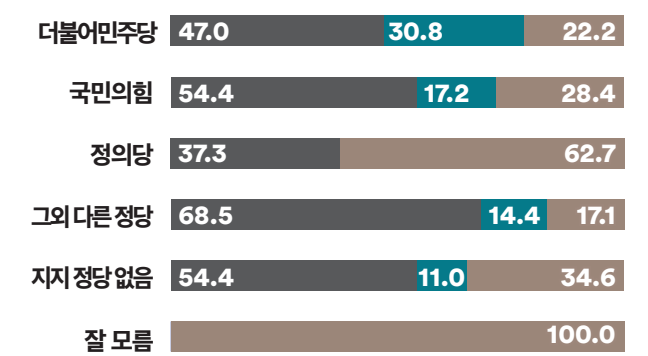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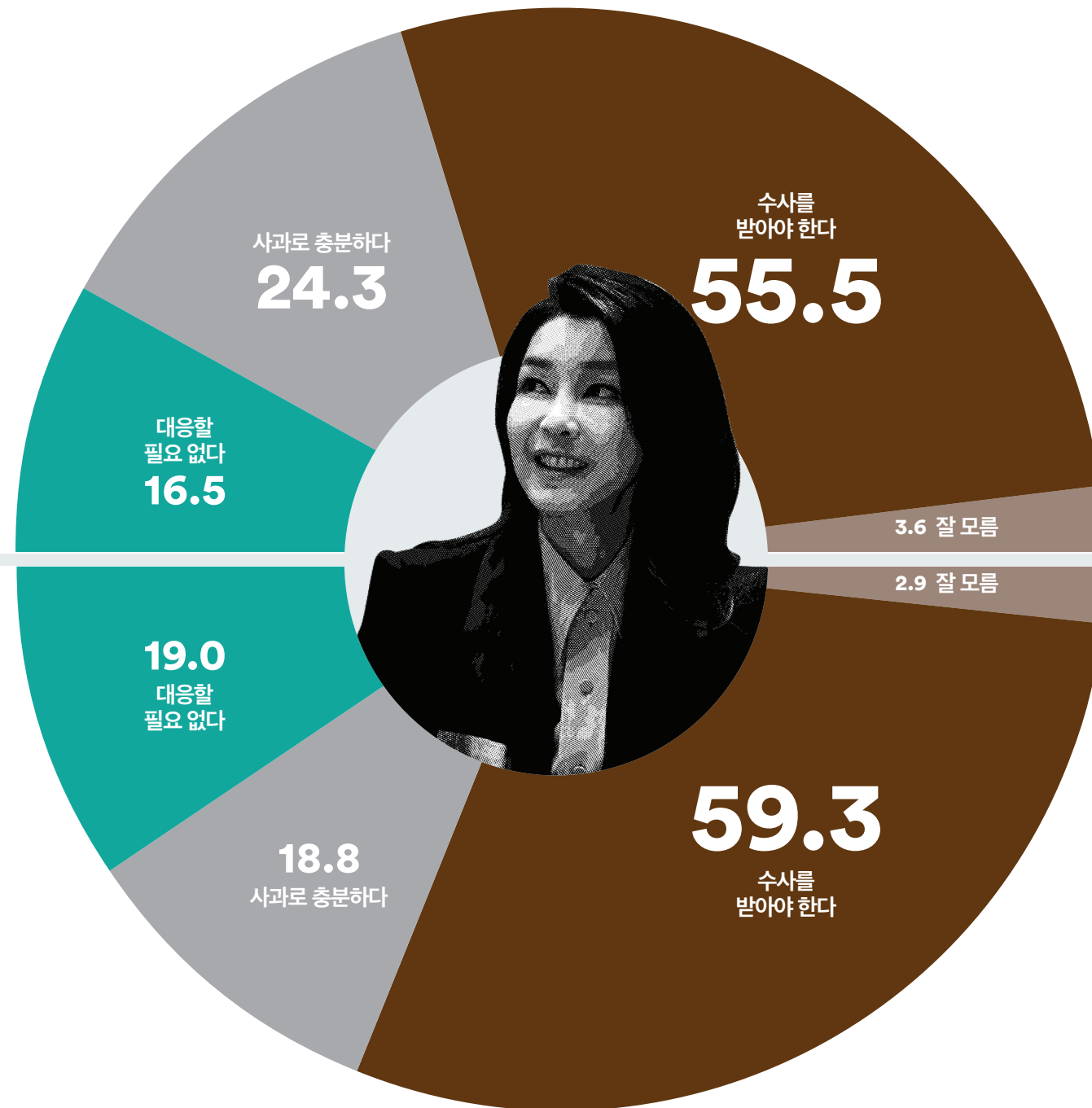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르겠다

Q.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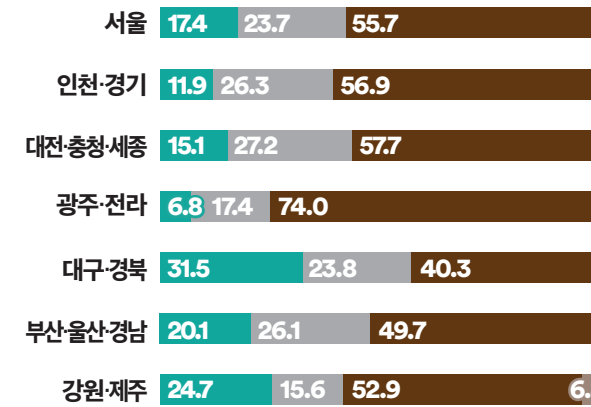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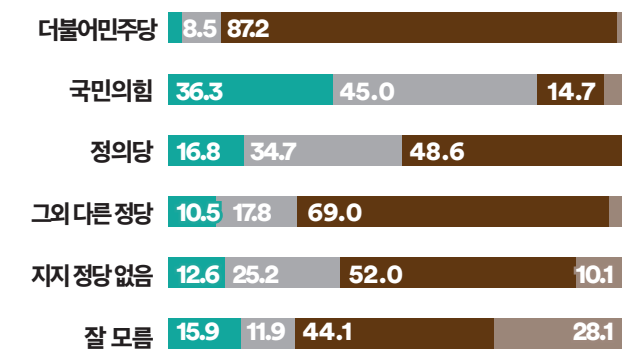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 다른 두 보기와 비교해 압도적 차이를 보이며 우세
두 조사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PK권역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두 조사 모두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앞서고,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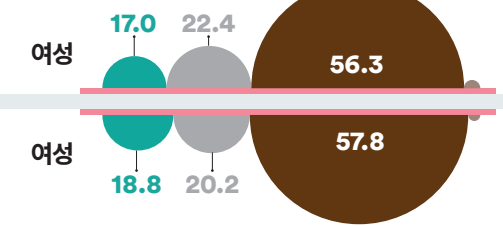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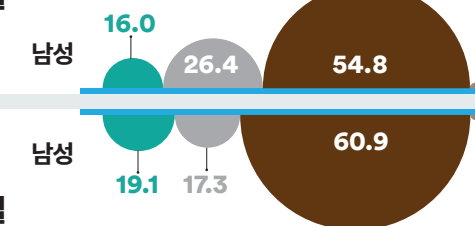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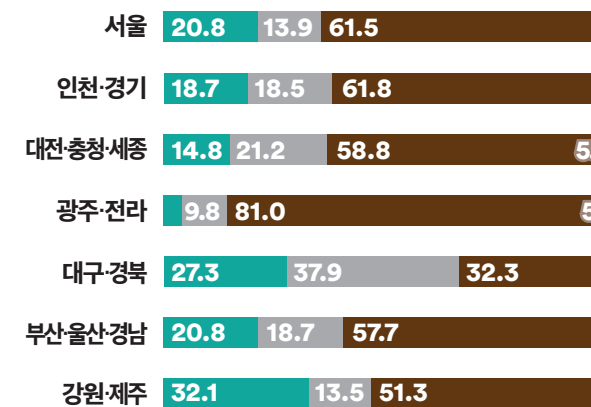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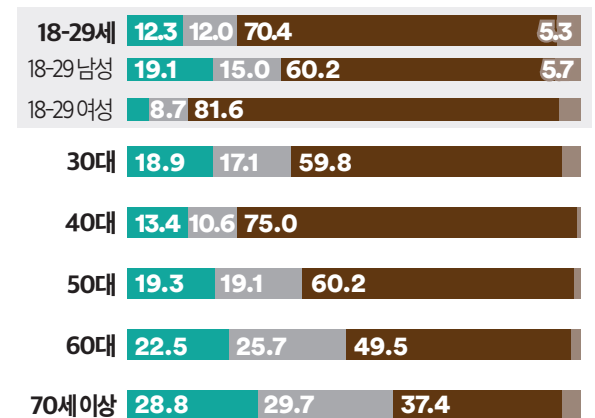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대응할 필요 없다 사과로 충분하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1월 종합 분석



CATI & ARS

정례조사 기준 CATI $n=4059$

정례조사 기준 ARS $n=4021$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1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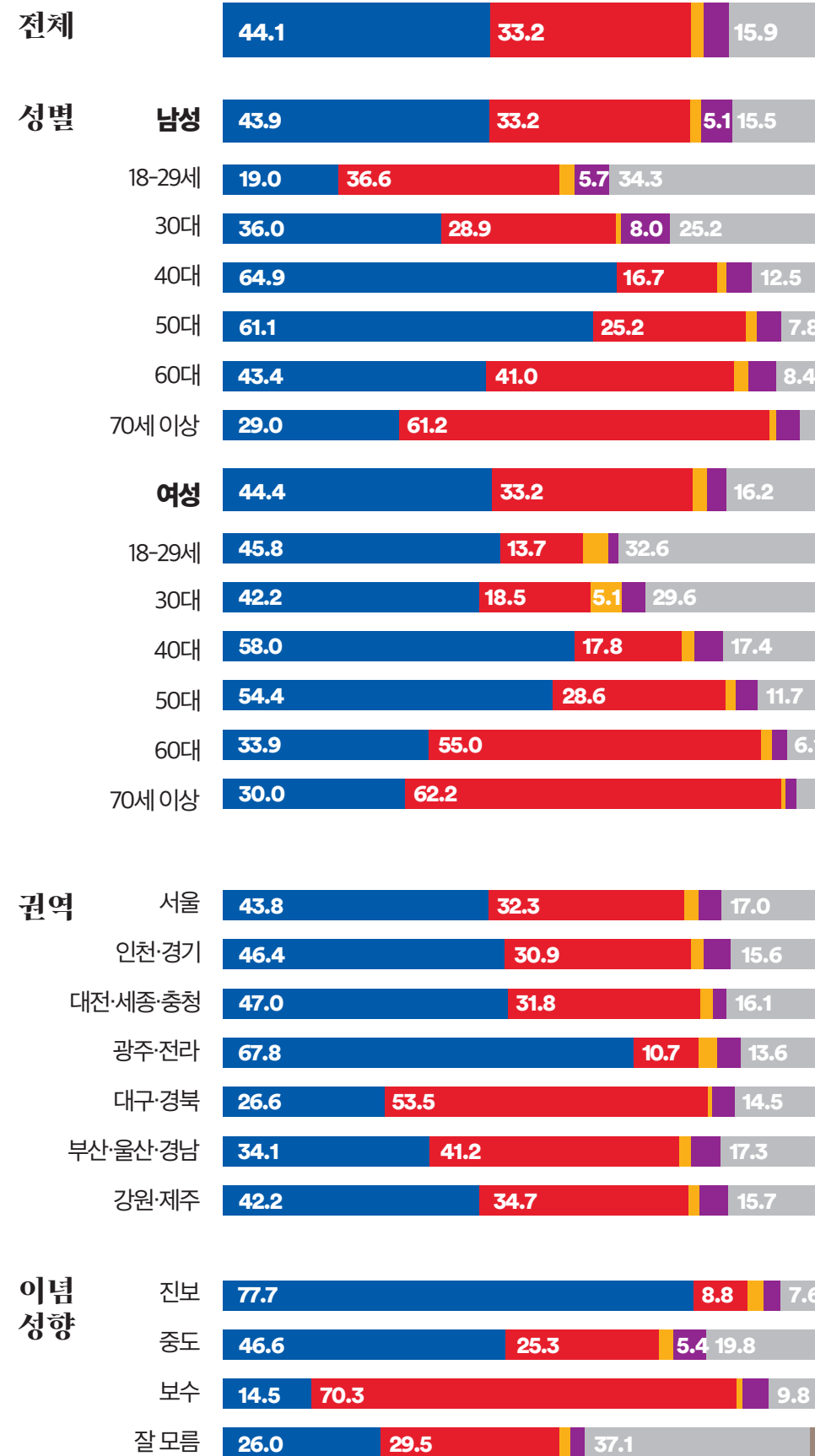
CATI

정례조사 기준 n=4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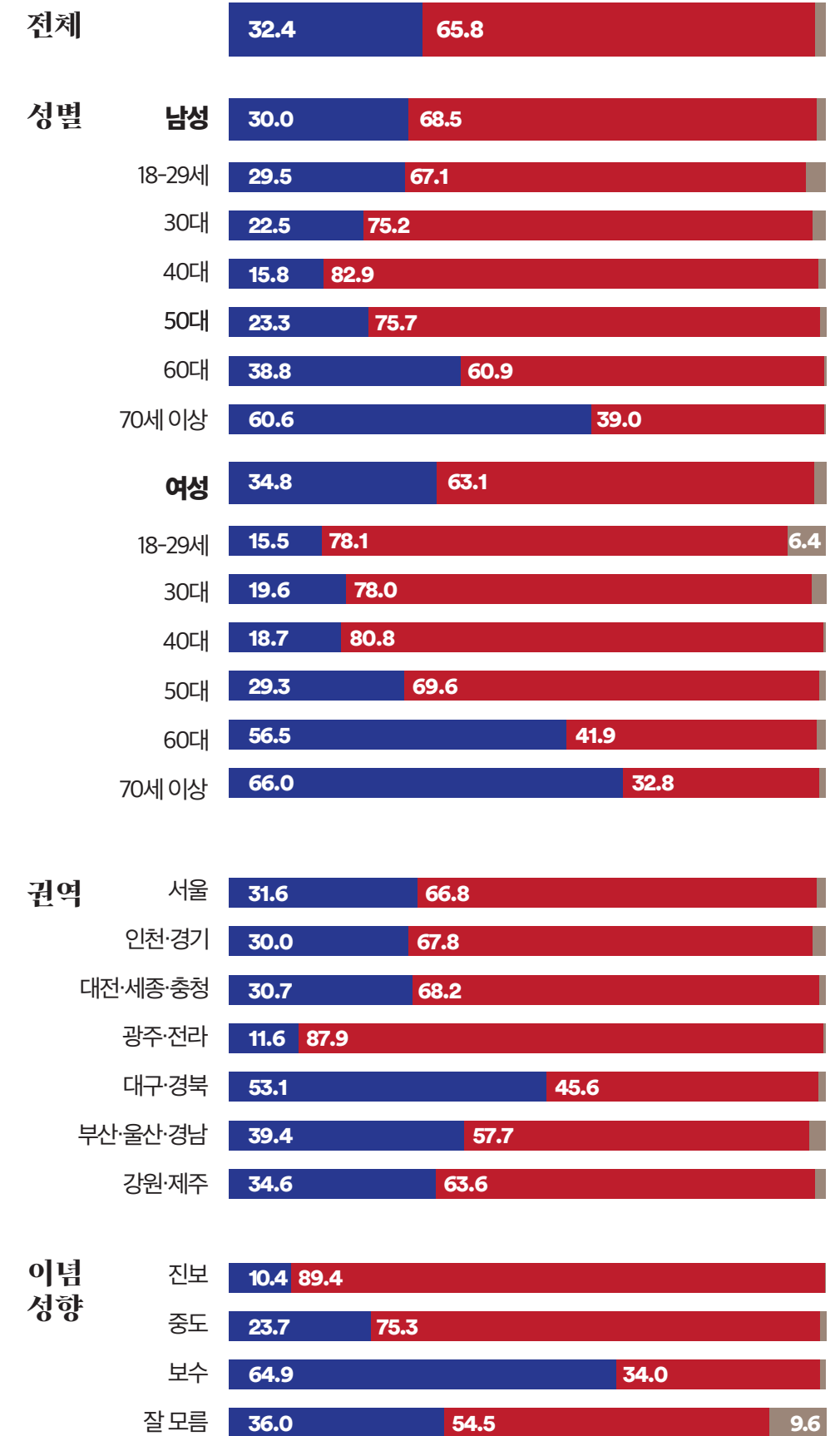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1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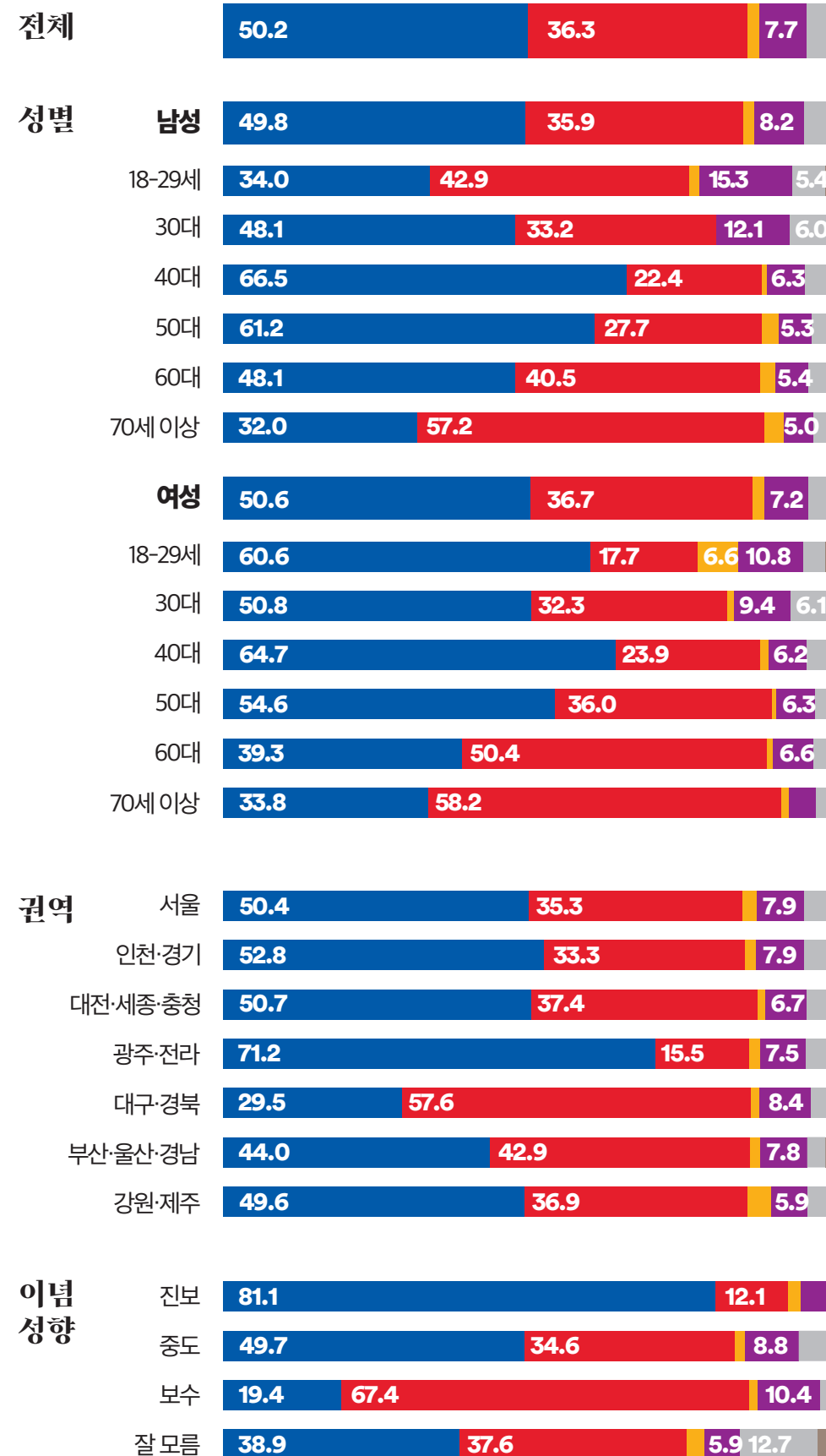
ARS

정례조사 기준 n=4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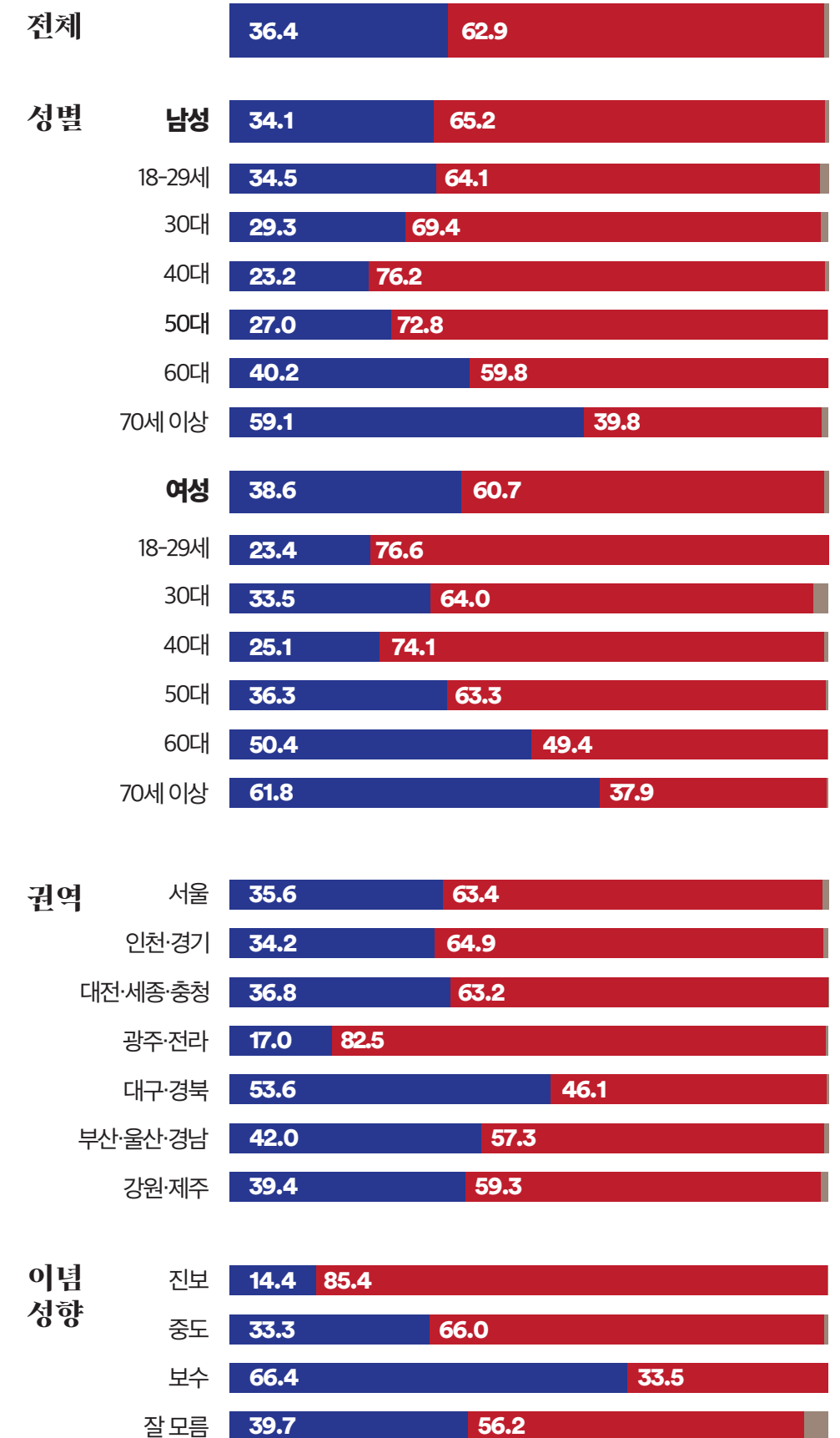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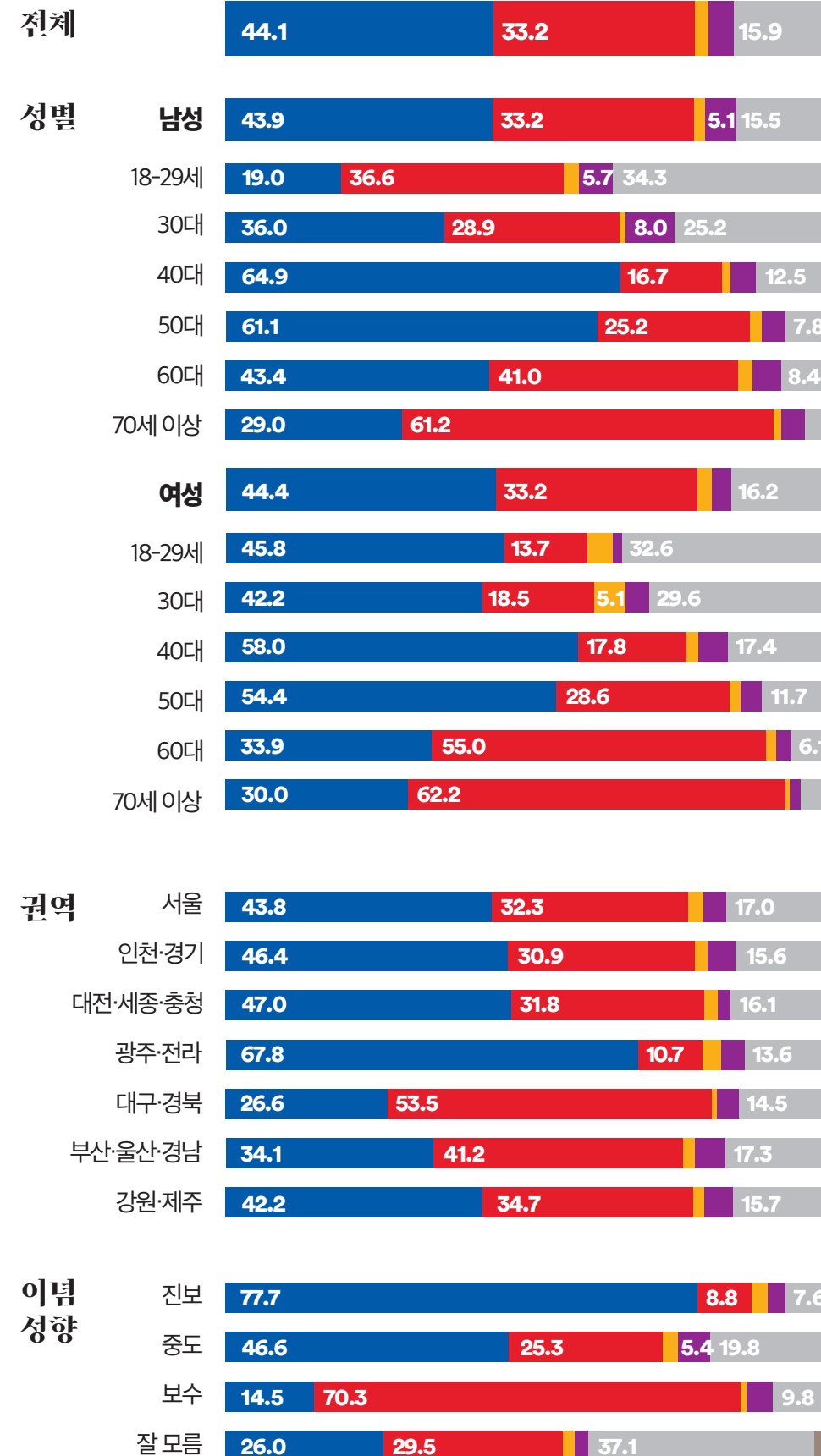
1월 통합 집계 정당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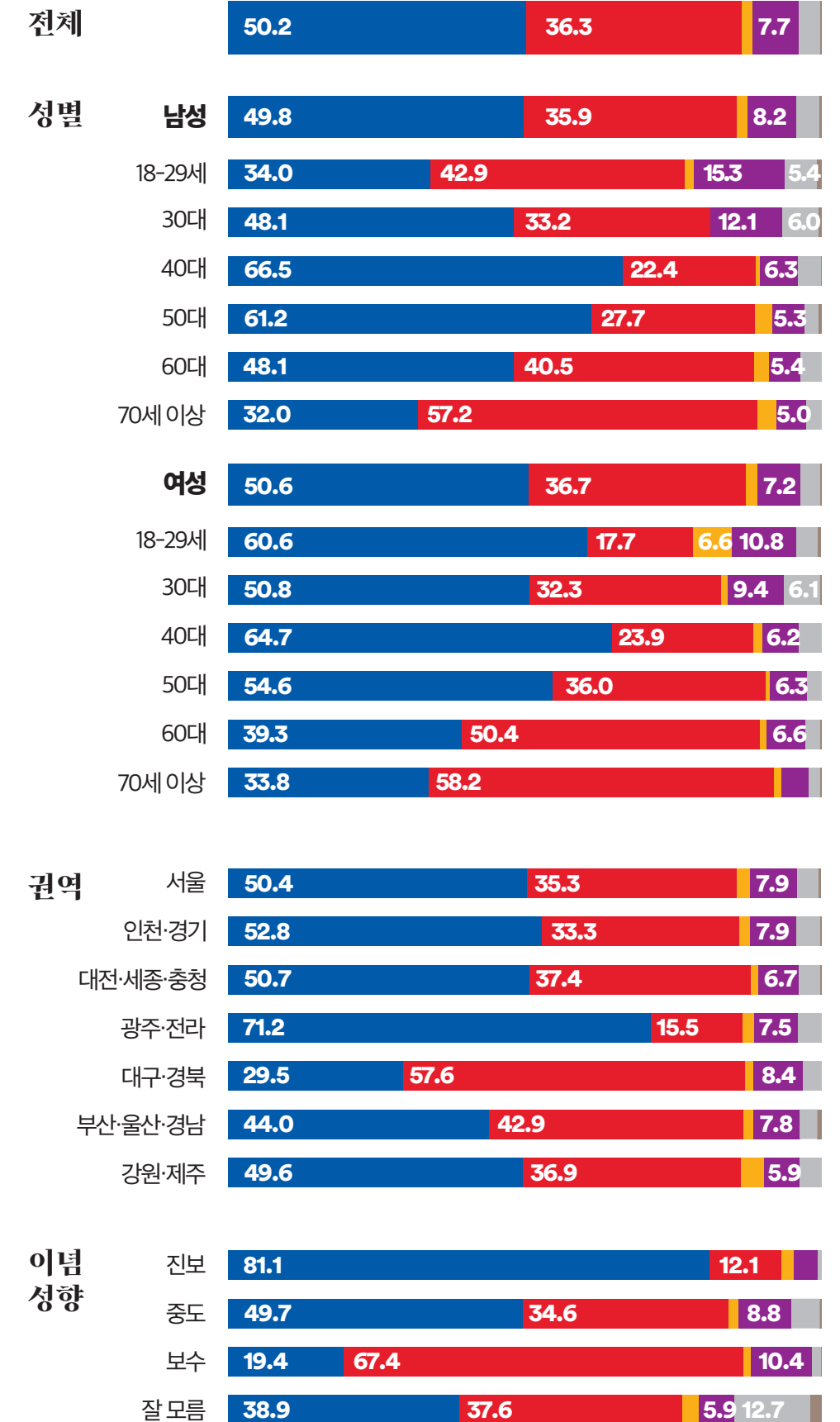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59
정례조사 기준 ARS n=402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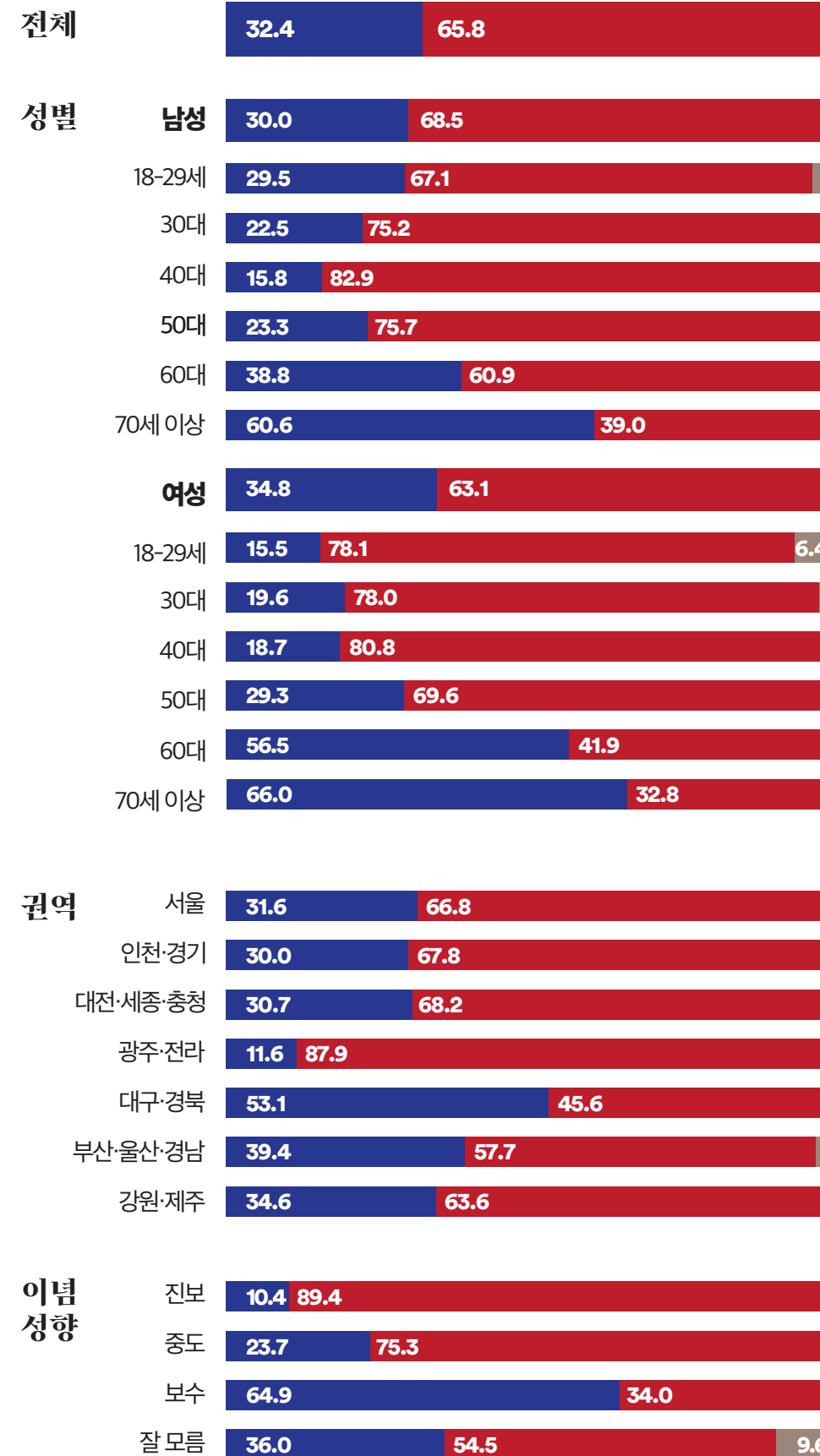
1월 통합 집계 국정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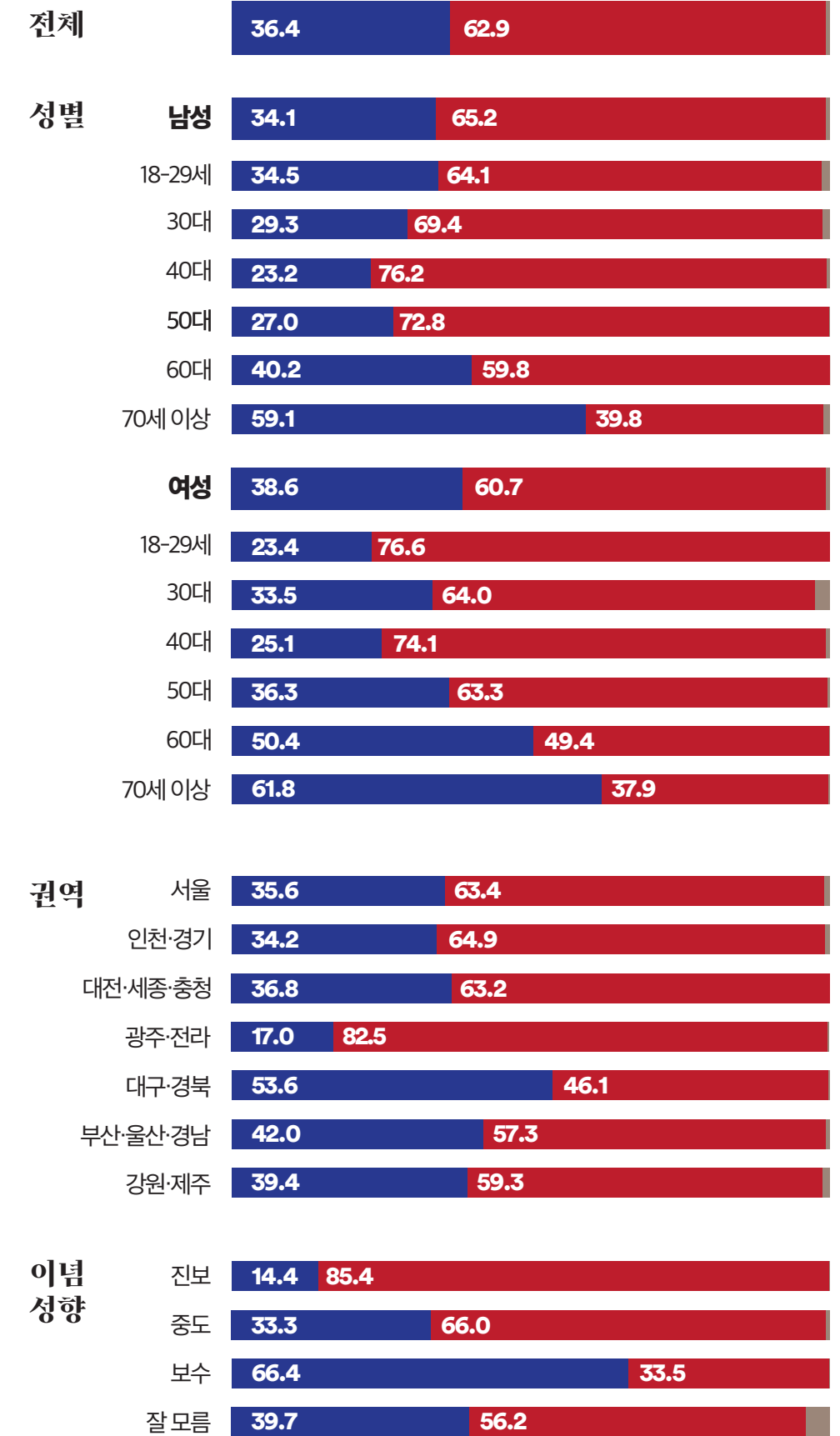
정례조사 기준 CATI *n*=4059
정례조사 기준 ARS *n*=4021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CATI



ARS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1_09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